

청송

재 중 조선인 총련 합 회
旅中朝鮮人总联合会

2026년

05

루제:26

<http://www.lzchongsong.com>





떡두꽃지짐

기본음식감: 떡두 500g, 대추 10g, 돌베섯 2g, 송갓 5g

보조음식감: 기름 50g, 소금 5g, 양념간장 15g

1. 떡두는 타개여 불구었다가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소금을 넣어 지짐감을 만든다.
2. 대추는 꽃잎모양으로 썰고 돌베섯은 가늘게 썬다.
3. 지짐판에 기름을 두르고 지짐감을 큰 손가락으로 하나씩 떠놓아 편 다음 그우에 대추, 돌베섯, 송갓잎으로 꽃모양을 하여 놓고 노릇하게 지겨 양념간장과 같이낸다.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 0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연구기관들 중요무기시험을 진행
- 02---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04---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하시교 함의 기동 능력종합평가시험을 참관하시였다
- 05---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군수공업기업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07---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군의 사, 려단 지휘관회합을 소집하시교 그들을 만나시였다

총련합회소식

- 09---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혁명전적지답사
- 12---재중조선인청년협회축하단 조국방문
- 19---총련합회 본부일군들 조국여자축구팀을 응원
- 19---제1차 공민 및 공민가족방문단 조국방문
- 22---장하다 우리 선수들

조국소식

- 25---자력의 고귀한 창조물 단천발전소 1 단계 준공식 진행
- 28---지방변혁의 시대가 안아온 새 생활, 새 풍경 앞에는 새 공장, 뒤에는 새살림집
- 30---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1차대회 진행
- 31---전국적으로 올해 봄철에 1억 수천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 32---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한 투쟁기세 계속 고조
- 34---우리의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 2026년 아시아축구련맹 17살미 만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1위 쟁취
- 35---우리 나라의 내고향팀 2025년-2026년 아시아축구련맹 여자선수권보유자련맹전 우승컵 쟁취

동포소식

- 36---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6차 전체대회 진행
- 37---녹아든 《사계절의 노래》, 연길의 미를 노래하다
- 38---산재지역에서 27년째 지켜온 전통문화의 뿌리
- 39---2026연변주조선족민속장기 초청경기 개최
- 40---《한조명사대역사전》 출간

중국소식

- 41---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15. 5》 계획강요 모두 공포
- 42---6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우리 생활에 영향 미쳐!
- 43---중국우주비행사들, 8번째 《우주합류》 달성
- 44---전국 인구 14억 545만명, 인구 성별비례 104. 21
- 44---6가지 발암촉진식품, 많은 사람들 매일 섭취

조중왕래

- 46---조선주재 중국대사관이 중조친선택압협동농장을 찾아 농촌지원 활동을 전개
- 47---왕아군대사가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성묘하고 보수공사진척정형을 료해하였다
- 48---왕아군대사가 문천시의 조선화교를 위문방문

국제소식

- 49---중국 미국과 영국의 일방적제재에 강력히 대응
- 49---로씨야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81돛경축 열병식 진행
- 50---조선인민군 룡해공군혼성중대 모스크바승리열병식에 참가

상식

- 51---김 응 서 와 계 월 향
- 54---인 디 아
- 56---제2차세계대전전의 전환
- 57---국 제 공 산 당
- 59---로씨야인들은 왜 중국을 《끼따이》라고 부르는가
- 59---단어발음에서의 말소리변화

련재소설

- 61---장편소설 림 꺾 정

앞표지:아름다운 모란봉의 봄풍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연구기관들 중요무기시험을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총국과 국방과학원이 5월 26일 국방발전 5개년 목표수행을 위한 포 및 미사일무력현대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새로 개발된 경량급 다용도미사일발사체계와 다련장전술순항 미사일무기체계시험을 진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시험을 참관하시였다.

해당 시험들에서는 전술탄도미사일의 특수사명전투부위력과 사거리가 연장된 240mm 조종방사포탄의 초정밀자치유도항법체계의 믿음성, 전술순항미사일의 인공지능 유도명중정확성을 분석평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시험결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중요한 고난도국방과학기술들이 실천무기시험에 도입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특히 남부국경지역 장거리포병려단들에 장비하게 되는 전술순항미사일에 대하여 그 군사적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시였다.

초정밀자치항법체계와 지형대조항법체계가 결합되고 인공지능말기유도기능이 도입된 전술순항비행탄은 활공 및 추진복합 비행방식으로 100km계선의 표적을 초정밀 타격하는 위력한 전술무기체계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된 중요무기체계개발시험들은 우리 군사력갱신의 뚜렷한 신호이자 우리 군대의 전투력강화에서 커다란 기술적진보를 의미하는 사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특히 평가할수 있는것은 모든 발사차량들의 사격조종계통과 자동화체계가 현대전의 적합조건들에 맞게 완전히 갱신되어 전투적용성이 제고된것이라고 하시면서 가장 강력한 전술급무기체계들의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점령되어나감으로써 우리 군대의 화력체계들은



자동화, 장거리화, 초정밀화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다고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정세는 부단한 군사력갱신을 재촉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상기하시면서 당대회가 결정포치한 포 및 미사일무력현대화계획의 발전방향의 정당성과 그 전망은 이미 쟁취한 고도의 국방기술적성과들에 토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확정적이고 과학적이며 성공적이라고 확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견주지 못할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강력한 포병무력을 건설하는것은 무력건설에서 우리가 최우선시하는 정책방향이라고, 대적하는 세력이 요행을 떠나 리론적으로 생존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는 파괴력을 갖추는것은 우리 군대의 작전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고, 그러한 능력은 적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주게 되며 그 자체가 전쟁억제의 중요한 고리로, 책임적인 행사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력한 전쟁억제의 힘으로 주권안전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발전을 담보하는것은 우리 무력과 국방과학부

문앞에 나서는 기본임무이라고 하시면서 국가방위력의 지속적인 장성과 무장장비들의 첨단화를 적극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과업들을 포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핵무력과 상용무력을 지속적으로, 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로선은 불변하다고 하시면서 군사주권을 수호하고 자위권을 책임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우리의 구상은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국방성 고문 박정천원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대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1 부부장 김정식대장, 미싸일총국장 장창하대장, 국방과학원 원장 김용환중장, 국방성 장비총국장 김강일중장, 총참모부 포병국장 유창선소장, 국방성 병기심사국장 김명선대좌가 무기체계시험을 참관하였다. (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 6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하시고 상반기도 주요무기전투기술기재생산실

태를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1 부부장 김정식동지, 국방성 고문 박정천동지, 국방성 부상 겸 장비총국

장 김강일동지, 총참모부 포병국장 유창선동지, 국방성 병기심사국장 김명선동지, 국방과학원 원장 김용환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중에 남부국경장거리포병부대에 장비시키게 되어 있는 3개 대대분의 신형자행평곡사포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대시험계획에 따라 진행된 신형 155mm자행평곡사포차의 각이한 주행 및 지형극복, 잠수도하시험, 개량포탄사격시험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청취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집단과 로동계급이 기동성과 화력타격능력이 매우 높은 새세대 포무기를 훌륭히 만들어내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사상과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과감한 창조본때와 혁명적인 기세로 련일 실적을 올리며 시달된 포무기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로력적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기업소로동계급에게 전투적인 격려를 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업소가 새로 생산하고있는 신형 155mm자행평곡사포무기체계의 우월성에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이 무기체계가 가지는 군사전략적가치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각이한 작전전술미사일체계들과 위력한 방사포무기체계들과 함께 전방부대들에 교체장비시키게 되는 대구경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km를 넘게 된다고, 이러한 화력타격범위의 급속한 확대와 표적격파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은 우리 군대의 지상작전에 커다란 변화와 유리성을 제공하게 될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무장장비들이 도입되고있는 현실적조건에 토대하여 역량과 기재리용에

대한 작전상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뛰어난 기동성과 높은 전투환경정보처리능력, 자동사격체계를 갖춘 새형의 포무기체계는 우리 포병무력의 구성을 완전히 일신시키게 되며 장거리포병강화에 관한 당의 군사전략적방침 실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생산체계구성과 가공구역 및 설비배치에 내재하고있는 일련의 결함들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구상이 안받침되어있는 자동흐름식생산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세울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는 문제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장갑무기연구소와 여러 군수공업기업소들에서 생산하고있는 신형주력땅크와 각이한 발사대차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무력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중요군수공업기업소들을 최단기간내에 최첨단수준으로 기술개건하고 현대적인 생산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것은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전원회의가 해당 군수공업기업소들의 기술개건계획사업들과 관련예산을 심의하고 비준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2026년에도 역시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한 투쟁행정에 전무한 갱신기록이 찍여질것이라고 확언하시면서 모두다 최대의 애국인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줄기차게 분투하고 노력함으로써 날에날마다 비약적인 성과를 쟁취해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이날 국방분야현지도는 국가방위력을 실용적으로 증대시키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하시고 함의 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을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 7일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하시고 취역을 앞두고 진행하는 함의 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을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1 부부장 김정식동지, 해군사령관 박광섭동지, 국방성 고문 박정천동지, 국방성 부상 겸 장비총국장 김강일동지, 국방과학원 원장 김용환동지, 총참모부 포병국장 유창선동지, 국방성 병기심사국장 김명선동지를 비롯한 국방부문 및 함선건조부문 지도일군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 《최현》호에 승선하시어 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항해계획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해병들이 현대적인 군사기술력의 종합체인 신형구축함을 능숙하게 운용할수 있는 전문적자질을 철저히 갖추기 위한 훈련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의 종합지휘소와 무기체계조종실을 비롯한 여러 전투군무공간과 요소들을 돌아보시면서 함의 작전준비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서해상 120 n·mile 구간에서 함의 각이한 기동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항해시험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를 자기들의 함에 또다시 모시고 항해를 하게 된 구축함해병들의 감격과 격정은 비상히 고조되고 사기는 충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의 전투기동성이 작전운용상요구에 부합되고 우리식 함선조

종체계의 우월성이 확증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구축함의 작전취역을 위한 모든 시험들이 순조롭게 진척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계획대로 오는 6월중순 해군에 인도할데 대하여 명령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건조하는 신형구축함들의 소속과 배치, 작전임무에 대하여 규제하시면서 그를 위해 해군에서 수행할 일련의 과업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군기지시설과 관련한 중요과업에 대하여서도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진행된 함선건조부문 일군들과의 협의회에서 새로 건조하는 3호함, 4호함의 설계변경문제와 새롭게 계획한 함상무장체계구성문제를 심의한 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중요결론을 하시면서 수정변경된 함선건조계획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결정은 중대한 전략적성격을 띤다고, 이러한 결정은 우리 군대의 전략적행동의 준비태세를 근본적으로 갱신하게 되며 전쟁억제력구축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그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에게는 신뢰성있고 강위력한 국방연구집단과 조선공업이 있다고 하시면서 새로 변경된 결정과업도 이들의 자력갱생의 불가항력적위력에 의하여 반드시 관철될것이라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반드시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드림없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시면서 전망적인 해군건설구상과 일련의 계획사업들에 대하여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구축함의 전체 해병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적극 고무격려하시면서 중대한 사명감과 고도의 책임감을 안고 훈련에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함으로써 전투력을 비상히 제고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의 선수갑판에서 구축함해병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를 또다시 몸가까이 모시고 크나큰 영광과 믿음을 받아안은 해병들은 우리 당의 영웅한 바다초병답게 막강한 실전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맹훈련을 활발히 벌려 우리 국가의 해상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전쟁억제의 일익을 담당한 본연의 성스러운 사명에 무한히 충실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군수공업기업들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 11일 여러 군수공업기업소들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동지, 국방성 고문 박정천동지, 국방성 부상 겸 장비총국장 김강일동지, 총참모부 포병국장 유창선동지, 국방성 병기심사국장 김명선동지, 국방과학원 원장 김용환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군수공업기업소들을 방문하시고 2026년 상반기 군수생산과제수행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종 포탄과 총탄생산에서 기록적인 장성을 이룩하며 우리 무장력의 전투력강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는 군수로동계급의 애국적헌신에 감사를 표시하시면서 그들을 고무격려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수공업의 구조와 생산체계, 시설들에 의연 결점들이 잠재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생산구조의 실용적인 갱신과 생산공정들의 합리적인 배치 등 현대화에 주력하며 기술관리, 인재관리, 로력관리의 최적화를 실현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부단히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공업기업소들에서 제품검수공정체계의 현대성을 제고하며 검수지표들을 더 과학적으로 세분화하고 엄격히 준수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생산설비현대화와 생산환경조건개선,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증진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총탄생산공장의 생산정형을 료해하시면서 구경별 고정밀 다목적탄과 특수기능탄들, 훈련탄들의 수요와 그에 따르는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박격포와 곡사포무력을 강화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면서 우리 무력의 전망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화된 포무기생산종합체와 저격무기생산공장을 설립하며 총포탄생산공장들의 생산구조와 현대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주요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 제9차대회정신과 과업을 높이 받들고 백배한 자신심과 무진한 창조력으로 국방력강화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해 기세차고 완강하게 분투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군수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과업들과 중요지시들은 우리 군수공업현대화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진로를 밝힌 과학적이고 강령적인 지침이며 군수생산의 질량적, 기술적변혁을 더욱 가속화하여 당의 국방건설정책실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중대한 이정표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군의 사, 려단 지휘관회합을 소집하시고 그들을 만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 17일 전군의 사, 려단 지휘관들의 회합을 소집하시고 그들을 만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고문 박정천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 그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 인민군장병들이 마음속에 숭엄히 안고 사는 성스러운 당 중앙청사에서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뵙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지휘관들의 가슴가슴은 세찬 격정으로 설레이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나오시자 탁월한 령군철학과 령도예술로 우리 군대의 무궁무진한 강화발전을 영광과 승리로 즐기치게 향도하시는 혁명의 걸출한 령도자를 우러러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활화로 분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바쳐가며 련합부대들을 이끌고있는 지휘관들의 남다른 수고를 깊이 헤아리시며 그들을 따뜻이 격려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의 각급 련합부대 지휘관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일련의 중요군사문제들에 대하여 담화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련합부대장들이 지니고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우리 군대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 무장시켜야 할 력사적위임이 바로 다름아닌 사, 려단장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시면서 현시기 군사정치과업수행에서 제기되는 주요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싸움준비완성을 위한 훈련은 군대의 본업이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언급하시면서 현대전의 변화되는 양상과 우리 군대의 발전추이에 맞게 훈련체계를 정비하며 실용적훈련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앞으로 우리 군대를 군사편제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구적대책을 세우게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를 정확히 집행해 나가는데서 지휘관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군사기술장비들이 급속한 속도로 현대화되는데 맞게 모든 공간에서의 작전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부대들의 전투훈련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사업들도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남부국경을 지키고있는 제 1 선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데 대한 우리 당의 령토방위정책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전쟁을 보다 철저히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서 앞으로 취하게 될 군사조직구조개편과 제 1 선부대들을 비롯한 중요부대들을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현대화에 대한 전망과 군사기술장비들의 진보에 대하여 소개하시면서 우리는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고있다고,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앞으로의 5개년계획기간의 과제들이 수

행되면 우리 군대의 전략적행동의 준비태세는 현재와 대비할수 없게 갱신되게 되며 전쟁억제의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고 확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의 지휘관들과 각급이 계급의식, 주적의식을 계속 높이며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주권사수의 성스러운 본령에 충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물리적힘에 앞서 우선 사상과 신념으로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사상과 신념은 물리적힘의 한계도 뚫는 유일무이한 우리 군대의 전투력의 비결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자기 위업에 대한 굳은 믿음을 억세게 간직하고 사상혁명을 끊임없이 벌려나감으로써 사상과 신념으로 적을 압도하는 조선인민군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며 또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의 명예와 지위를 굳건히 고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 지휘관들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 사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성스러운 책무수행에 충직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전군의 련합부대장들과 함께 당중앙뜨락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령장을 몸가까이 모시고 대해같은 믿음과 무상의 영광을 받아안은 인민군 각급의 련합부대장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강령적가르치심을 투쟁의 좌표로 새겨안고 당과 혁명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무한히 충실함으로써 그이께서 이끄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가장 강한 시대 조선인민군 지휘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시였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혁명전적지답사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혁명전적지답사단이 2026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혁명전적지답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혁명전적지답사단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이후 당결정판철을 위한 조국인민들의 힘찬 투쟁에 호응하여 조직진행되었다.

이번 답사는 모든 회원들이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 깊이 학습하고 혁명선열들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며 경제인련합회의 조직력을 한계단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첫날 길림성 장백산서역에 도착한 답사단은 안도현지부 윤경자지부장의 안내를 받았다.

첫 일정으로 무송에 있는 장울화렬사의 묘와 그의 집을 방문하였다.

장울화의 손자가 답사단일행을 맞이하고 해설을 하였다. 수령님을 흠모하여 따르면서 항일투쟁을 적극 지원하면서 혁명조직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의 생을 마감한 국제주의 전사 장울화렬사의 사적과 장울화렬사를 잊지 못하시어 그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안겨주신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에 답사단성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튿날 답사단성원들은 차를 타고 백두산으로 갔다. 차에서 노래도 부르고 전적지에 깃든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대한 해설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학습도 진행하였다. 당시 중국정부기관일군들이 답사단을 맞이하고 적극 협조하여 백두산여행객들이 많았지만 답사가 순리로웠다.

백두산정상에 오른 성원들은 웅장한 백두봉우리들과 눈덮힌 천지를 굽어보면서, 창망한 하늘아래 아득히 뻗어간 산발들과 수림들을 바라보며 걱정애 넘쳐 시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를 읊으면서 선열들의 투쟁정신으로 일하겠다는 결심들을 다지고 백두폭포도 돌아보았다.

5월 1일 답사단은 수령님께서 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신 안도현 소사하 무주마을 토기점골등판으로 행군하였다.

당지정부의 해당부문 일군들이 동행하였다. 토기점골로 향한 답사행군은 예상밖으로 힘들었다. 나무와 돌로 뒤덮힌 길에 이날따라 흙먼지와 모래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무가지들을 헤치면서 경사가 심한 고개들을 서로서로 의지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토기점골등판에는 수령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선포를 기념하여 세운 기념비가 있었다.

답사성원들은 수령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위하여 바쳐오신 혁명업적을 회상하면서 꽃다발을 정중히 드리고 인사를 하였다. 계속하여 답사단성원들은 이곳에서 멀리 않은 홍룡촌혁명전적지를 찾았다. 홍룡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1년 여름부터

1932 년 초까지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조직지도하신 곳이며 강반석녀사께서 반일부녀회사업을 지도하신 마을이다.

답사단성원들은 표식비에 꽃다발을 올리며 인사를 하고 기념사진도 찍으며 전적지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강반석어머님의 혁명력사를 숭엄하게 되새겨보았다.

이튿날 답사단은 력사적인 남호두회의가 열린 흑룡강성 녕안시 남호두 소자지하에로의 행군길에 올랐다.

우연하게 남호두회의에 참가하였던 한족 항일투사의 손자가 답사단일행을 안내하게 되었다. 경사가 심한 산비탈길은 눈비에 씻기고 바위돌이 가득하였다.

걸고 걸어도 산정상엔 보이지 않는데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처음 해보는 산길행군이라 무척 힘들었다. 행군도중에 항일유격대원들이 리용하던 샘물터에서 얼굴도 씻었다. 약 2시간을 힘겹게 올라 마침내 력사의 땅 남호두회의장소에 도착하였다.

아직도 그날의 력사가 력력히 남아있고 남호두회의정신이 살아숨쉬는것만 같은 혁명전적지를 바라보며 답사성원들은 조종기발을 띄우고 이국의 험산준령을 넘나들며 항일성전에 떨쳐나선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쟁정신과 항일무장투쟁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라고 할수 있는 남호두회의 내용들을 회억하며 기념비에 꽃다발을 드리고 인사를 올리였다.

이날의 답사는 인생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될 뜻깊은 답사였다. 답사단을 안내한 한족분은 올해 70세 로인인데 날렵하게 등산하여 모두들 의아해하였다. 로인은 남호두회의참가자들 중에 중국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령님께서 중어로 류창하게 보고하였다고 해설해주었다. 할아버지때부터 산을 오르내리면서 대를 이어 전적지를 관리하면서 앞으로 자기 아들도 계속 대를 이어 전적지를 관리할것이라고 하는 그의 말에 답사단성원들은 조종친선은 영원하리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답사단성원들은 전적지답사의 마지막 로정인 소왕청유격근거지가 있는 길림성 왕청현으로 향하였다. 소왕청유격근거지는 항일투쟁력사를 선전하는 홍색유람지여서 길도 좋아 4시간을 달리는 로정이었지만 유쾌하고 편안하였다. 차에서 소왕청유격근거지에 깃든 해설과 회고록학습을 진행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차상보부의장동지와 연변지구협회 일군들이 답사단성원들을 맞이하였다. 소왕청유격근거지는 첫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였는데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일제놈들의 수습차려의 토벌공격을 물리치고 《연길폭탄》도 만들면서 유격구를 철벽으로 지켜냈다.

소왕청유격근거지는 샘물터와 학습터 등 력사적사실을 체험할수 있는 장소들이 잘 보존되어있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이번의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혁명전적지답사는 항일투사들의 자욱을 따라 행군하면서 일제의 식민지로 신음하는 우리 인민에게 해방을 안겨주시려고 항일대전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더 깊이 학습하고 항일혁명선렬들의 불굴의 의지와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고 내 조국을 빛내여나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한 뜻깊은 답사였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는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깊이 학습하고 선렬들의 투쟁정신을 배우고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의 사명을 완성할것을 결의하였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혁명전적지답사단

2026 년 5 월 5 일



재중조선인청년협회축하단 조국방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 11 차대회에 즈음하여 김송미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청년협회축하단이 4 월 22 일부터 5 월 9 일까지 조국을 방문하였다. 축하단 성원들은 전체 청년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안고 대회앞으로 축기와 축전을 드리었다.



축기전달식에서 김송미단장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 11 차대회에 우리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과 전체 동포청년들이 보내는 열렬한 축하와 열화의 사랑이 한쪽의 축기에 담아 드리게 됨을 최상의 영예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 11 차 대회에 다시 한번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체류기간 축하단 성원들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 11 차대회 기념행사들에 참가한 영광을 한생의 가장 귀중한 재부로 깊이 간직하며 조국의 튼성번영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사업에서 앞장에 서려는 결의들을 다지었다.

체류기간 축하단성원들은 강동군병원, 청년운동사적관, 평양종합병원, 조선혁명박물관, 중앙계급교양관, 국제친선전람관, 금수산태양궁전,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강동군종합봉사소, 대성산혁명렬사릉, 묘향산을 참관하면서 조국의 강대함을 체감하였다. 대회를 기념하여 진행된 청소년학생들의 야회 및 화불행진, 청년중앙예술선전대와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애국청년들과의 상봉모임을 통해 조국청년들이 바친 애국의 땀과 위훈을 폐부로 느꼈다.

축하단 단장 김송미회장은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 11 차대회 축하단으로 어머니조국의 품에 다시 안겨 참으로 깊고도 무거운 사명감, 책임감을 자각하게 된다고 하면서 청춘의 힘이 용솟음치고 애국의 피가 펄펄 끓게 하는 조선청년들의 대회합, **김정은**청년강국의 질풍노도 같은 전진기상과 끝없이 양양한 미래를 뜨겁게 체감하는 이 력사의 현장에 내가 서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과 행운, 영원히 잊을수 없는 추억이라고 하였다.

감상문

축하단 리복순부회장은 조선로동당의 청년중시사상이 집대성된 사상교양의 거점 청년운동사적관을 참관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과 오늘도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의 길을 이끄시는 백두령장의 존엄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았다고 하면서 오늘 조선청년들은 원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믿음속에 나라와 민족의 방향과 앞길을 열어나가는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위력떨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량리향동무는 강동군병원을 돌아보면서 인민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않으시는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대하여 폐부로 느끼게 된다고 하면서 우리 원수님을 모시여 오늘의 행복도, 래일의 영광도 있다는 확고한 절대적신념을 안고 몸은 비록 해외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두고 부강조국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는 해외애국청년이 되겠다는 결의를 다지였다.

평양종합병원을 참관한 **김영미동무**는 인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멸사복무의 길을 걸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낳은 결실이 얼마나 위대한것인가를 폐부로 느꼈으며 인민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조국의 해외공민된 공지와 자부심을 만끽하며 애국충정의 길을 억세게 걸어나가겠다고 마음을 다지였다.

김명옥동무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면서 조선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새 세대 청년답게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무어주시고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것처럼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재증조선인총련합회의 충실성의 전통, 단결의 전통, 애국의 전통을 곳곳히 이어나가갈것이라고 하였다.

조수영동무는 중앙계급교양관참관에서 마음속에 영원히 가실수 없는 원한의 상처를 남긴 전쟁, 새 생활의 희열로 약동하던 고국산천이 피에 젖어 몸부림치던 그날의 참상을 생생히 떠올려주는 력사적사실자료앞에서 원썬들에 대한 복수의 적개심이 활활 타올랐으며 정의가 부정의에 짓밟히지 않으려면 우선 강해져야 하며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불멸의 주적관,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진리를 새기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오숙경동무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돌아보면서 전쟁영웅들을 영광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에 대하여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강사동지의 강의를 통하여 전쟁로병들이 꽃다운 청춘을 목숨과 맞바꾼 조국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며 언제 어디에 살아도 우리는 조선사람, 조선청년이라는

공지를 항상 간직하고 전승세대의 넋을 이어 그들이 피로써 지켜낸 내 조국의 부강발전
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결의를 다지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참관한 **김혜경**동무는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퍼지는 세상
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전변시켜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국의 공민된 이 영광과 공지를 안고 우리를 따듯이 품에 안아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내 조국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결성세대들이 물려준 애국의 바통을
꼭꼭히 이어나갈 결심을 다지였다.

강동군종합봉사소를 방문한 **김수련**동무는 문명개화의 거점인 강동종합봉사소를 돌아
보고나니 인민의 문명과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가는 당의 은정과 배려가 얼마
나 위대한것인가를 눈으로가 아닌 폐부로 체험하게 되었으며 우리 당 지방발전 20*10
정책이 낳은 새 풍조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축하단 성원들은 이와같은 자부심을 안고 조국방문의 나날을 뜻깊게 보내였다.

만경대



강동군병원



종합봉사소



청년운동사적관



애국렬사릉



조선혁명박물관



축기전달



상봉모임



청년학생야회 및 화불행진



묘향산



총련합회 본부일군들 조국여자축구팀을 응원

선전국

2026년 아시아축구연맹 17살미만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 우리 나라팀과 일본팀과의 결승경기가 중국 소주에서 17일에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리순남제 1부의장을 비롯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본부일군들이 응원단을 무어 경기당날에 소주에 도착하였다.

상해시지부공민들과 소주에서 살고있는 친조인사들이 본부일군들과 함께 응원단에 합세하였다.

총련합회응원단은 조국응원단팀과 한데 어울려 열광적으로 조국팀을 응원하였다.

치열한 결승경기에서 나어린 우리 조국선수들은 일본팀을 5대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기고 영예의 우승을 쟁취하였다.

경기가 끝나고 조국의 17살미만 여자축구감독과 선수들이 총련합회응원단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나어린 여자축구선수들의 승리는 우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고 우리 재중공민들에게 해외공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제 1 차 공민 및 공민가족방문단 조국방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 1 차 공민 및 공민가족 방문단 20명일행이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총련합회 류창환지도원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공민들과 공민가족성원들로 구성되었다.

방문기간 방문단일행은 조국의 친척들과 상봉면회하고 평양시, 서해갑문, 룡강온천, 원산갈마,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조국의 유명한 참관지들을 참관방문하고 평양시의 새로 건설된 화성거리, 전위거리, 새별거리 등 여러곳들을 참관방문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가는곳 마다 코로나기간 새로 건설된 현대적인 화려한 건축물들과 활기찬 변화거리들의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말그대로 백문불여일견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기회가 되면 주변의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자주 방문하고싶다고 하면서 조국을 방문할수 있는 경로에 대해 자주 문의하였었다.

방문단성원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면서 렬강들의 조국에 대한 혹독한 제재와 코로나라는 인류대재앙속에서도 눈부신 조국의 번영발전하는 모습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니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모두들 앞으로 조국의 번영발전에 조그만한 힘이라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극 기여하겠다고 다양한 형식으로 발언하였다.

방문기간 방문단성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로 조국을 방문할수 있게 되어 더없이 고맙다고 하면서 고마움의 진정을 토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조국의 번영발전에 자기들도 말로만 아닌 실제행동으로 조그만한 힘이나마 이바지하고 싶다면서 방문단성원 도합 1만원, 심양시의 열성공민 92세인 렬순자선생은 2500 원으로 총 12500 원을 **김일성김정일**기금에 정성담아 기증하였다.

방문기간 젊은 공민들과 공민가족성원들은 조국의 번영발전하는 활기찬 모습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조국과의 경제협력의 기회를 적극 탐색해보고싶다고 하면서 총련합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을 희망하였다.

감상문

중국연변배전공사직원 리송



2026년 4월 30일 나는 재중동포조직의 방조와 조선의 관심과 배려하에 저의 집사람과 함께 장모님을 모시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 1차 공민 및 공민가족방문단성원으로 처음으로 조국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조국을 방문하는 이 며칠동안 우리 온 가정은 조선의 지도원들의 열렬한 초대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감동받은것은 중국에서 들은 것과 다른 번영장성하는 조국의 모습들이였습니다.

그리고 가는곳마다에서 조국인민들의 밝고 씩씩하며 명랑한 얼굴들, 신심가득찬 그런 모습들이였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이제 멀지 않는 앞날에 우리 조국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하에서 천하제일강국으로 되리라 굳게 믿으며 내 스스로가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크게 가집니다.

나는 이제 조국방문을 마치고 중국에 돌아가서 조국방문기간 제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해주어 조국의 새 모습을 알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하다 우리 선수들

응원단 권현

2026 년 아시아축구련맹 17 세미만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 우리 조국선수들이 준결승전에서 중국팀을 이기고 일본팀과 결승경기를 진행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리순남제 1 부의장을 비롯한 본부일군들이 조국선수들의 승리에 기여하려는 마음을 안고 17 일 심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강소성 무석시에 도착하여 차를 타고 결승경기장소인 소주시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이번 경기응원에 합세하는 상해시지부공민들과 소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친조인사들과 함께 경기장으로 달려갔다.

조국의 응원단들이 붉은 옷에 흰모자를 쓰고 입장하는것이 눈에 띄운다,

우리는 경기장에 입장하여 조국의 응원단성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응원련습을 하였다.

선수들이 입장하고 두나라 국가가 주악되면서 경기가 시작되었다.

조국의 나어린 여자축구선수는 경기시작부터 드센 파도식공격을 들이댔다.

오스트랄리아선수들을 누르고 결승에 올라온 일본선수들도 만만치 않지만 방어에 급급하면서 역습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작년에 세계컵을 들어올린 우리 조국선수들과는 실력에 차이가 있는것 같다.

우리는 조국의 응원단성원들과 함께 공화국기발을 날리면서 힘찬 조국노래도 부르고 선수들의 이름도 웨치면서 힘껏 응원하였다.

치렬한 공방전속에 시간이 흐른다.

마음이 긴장하였다. 그러나 꼭 이기리라고 믿었다.

나는 조국의 여자축구선수들의 경기를 몹시 즐겨 본다.

그것은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이 필승의 신심과 완강한 투지, 튼튼한 육체로 경기에 최선을 다하기에 아쉬운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없기때문이다.

긴장이 흐르는 경기시간 30 분경에 유정향선수가 재치있게 선제골을 넣었다.

순간 우리 조국응원팀은 경기장이 떠나갈듯 함성을 지르면서 응원봉을 두드리면서 선수들을 응원하였다.

응원복을 입은 우리 응원단성원들이 류달리 눈에 띄었다.

남경대학살을 기억하는 중국인 관중들도 조선선수들을 적극 응원하였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박력있게 경기를 운영하더니 5 분만에 유정향선수가 또 한골을 보기 좋게 차넣었다.

우리는 목청껏 응원하였다.

잠시후 일본선수도 한골을 넣어 긴장된 우리 응원단은 기발을 날리면서 조선선수들을 응원하였다. 김원심선수가 득점하였다.

3 대 1 로 앞섰지만 마음을 놓을수 없어 계속 응원하는데 유정향선수가 또 골을 넣어 마음이 안착되었다.

우리는 계속 응원을 하면서 유정향선수가 편속 네번째 골을 넣는 통쾌한 장면을 목격하였다.

일본선수들은 기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수세에 빠지고 의지도 상실하였다.

조국선수들이 5 대 1 이라는 압도적점수차이로 일본팀을 누르고 영예의 우승을 하였다. 장내가 떠나갈듯 함성을 웨쳤다.

나어린 조국선수들은 람홍색 공화국기를 날리며 운동장을 돌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관중들에게 손저어 인사하였다.

그리고는 특별히 우리가 있는 응원단 앞으로 달려와 손들을 잡고 인사를 하면서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우리들도 일어서서 손기발을 흔들며 소리치면서 선수들의 경기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나어린 조국선수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감격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우리 조국선수들은 정말 장하다.

이번의 승리로 아시아축구련맹 17 살미만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5 차례나 우승을 하고 국제축구련맹 17 살미만 여자월드컵을 4 차례나 들어올리는 체육신화를 창조하여 주체조선이 위용을 떨쳤다.

2 년전 아시아컵경기에서 일본팀을 1 대 0 으로 이기더니 이번에는 5 대 1 이라는 완승을 쟁취하여 정연한 후비양성체제를 겸비한 우리 조선여자축구의 기상과 본때를 보여주었다.

정말 통쾌하다.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 앞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최우수상들을 들고 우리와 상봉하는 감독을 비롯한 축구선수들에게 리순남제 1 부의장이 영예의 1 위를 쟁취한 성과를 축하하면서 조선의 장한 딸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였다고 선수들을 포옹하였다.

조국의 축구책임일군이 리순남제 1 부의장에게 먼길을 오시여 응원하여주어서 큰 힘이 되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씩씩한 조국의 나어린 선수들과 기쁨과 환희를 나누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에 남는 기념사진들을 찍었다.



정말 조선사람의 긍지로 가슴 부풀고 해외공민의 자부로 자랑스럽다.

이날 저녁 우리들은 여자축구선수들의 승리의 기쁨속에서 자정이 넘도록 축배잔을 들고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소주의 졸정원(拙政園)을 유람하고 오후에는 배를 타고 수향(水乡)을 유람하였다.

인구가 천만이라는 큰 도시인데 나는 상해와 남경은 다녀가봤지만 소주는 처음이다. 옛날 미녀가 많다는 소주여서인지 록음이 우거지고 거리도 깨끗하고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축구승리의 부푼 가슴에 눈에 안기는것이 모두 경관들이다. 보슬비가 흠날린다. 홀로 거리를 지나 사산대교(獅山大橋)에 올라 대도시를 가로지르는 오랜 역사와 최장의 길이를 자랑하는 경항대운하(京杭大運河)에서 분주히 오가는 배들을 바라 보면서 평화의 귀중함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우리 조국도 평화를 지켜 경제건설에 주력하고있다.

이튿날 우리는 귀로에 올랐다. 높은 하늘에서 대지를 굽어보며 생각하니 총련합회에서 이번 응원단을 조직한것이 정말 잘하였다. 조선사람으로 영광스럽고 해외공민으로 떳떳하다. 로당익장하여 조국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에 힘써 노력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자력의 고귀한 창조물 단천발전소 1 단계 준공식 진행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목표실현을 위한 투쟁에 충분기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면적룡성기를 줄기차게 일어나가는 전체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기세가 날로 고조되는 속에 나라의 전력공업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단천발전소 1 단계 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결되었다.

우리 당이 펼친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 실현에 펼쳐나선 전체 군민건설자들은 굴할줄 모르는 조선사람의 기질과 투쟁본때로 북부산악의 험준한 산발들을 꿰지르며 물길굴을 형성하고 두개의 언제와 함께 단천 1 호, 5 호, 6 호발전소들을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을 위한 또 하나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총성과 애국의 힘으로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고 건결한 개척정신과 강용한 분투로 번영의 세월을 당겨오는 우리 인민특유의 자존, 자력의 기상이 떠올린 대동력기지의 준공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드높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가속화해나가는 공화국의 무진한 발전잠재력의 일대 시위로 된다.

단천발전소 1 단계 준공식이 18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준공식장은 험산준령에 대건설의 전역을 전개하고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에 거대한 동력을 더해주게 될 귀중한 재부를 창조

한 발전소건설자들의 크나큰 자부와 영예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태성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단천발전소건설사단지휘조, 련관단위 일군들, 허천군안의 일군들, 근로자들, 군민건설자들, 발전소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내각총리 박태성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총리동지는 자립적동력공업의 잠재력을 강화하는데서 큰 몫을 감당하게 될 단천발전소 1 단계 대상들은 진함없는 열정을 안고 당대의 고생을 보람으로 자부하는 우리 시대 참된 애국자들의 깨끗한 량심과 헌신적노력이 안아올린 귀중한 재부이라고 하면서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건설한 혁명가적자각과 영웅적인 투쟁으로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일떠세우고 새시대 건설혁명에 박진력을 더해준 군민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 지휘성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수년세월 고귀한 피땀을 뿌리며 한치한치 열어간 백수십리의 물길굴과 산을 깎고 강을 막아 쌓아올린 언제들, 힘과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며 일떠세운 발전소들은 건설자들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인한 투쟁기풍을 증견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단천 1 호, 5 호, 6 호발전소건설이 완공됨으로써 북부지대 여러 강하천의 물을 동해어로 넘기는 최대규모의 수력자원 개발사업에서 뚜렷한 성과가 이룩되고 앞으로의 발전소건설을 보다 확신성있게 내밀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인민경제 기간공업부문을 선진수준에 올려세우고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며 지방의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는것과 같은 중대사들과 마찬가지로 단천발전소건설 역시 쉽게 결단할수 없었던 방대한 사업들중의 하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시의 엄혹한 환경속에서 전례없는 대자연개조사업이 개시된것은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을 모두 떠맡아 현실로 전환시키시려는 열화의 애국의지와 강인담대한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만이 결행하실수 있는 하나의 혁명이였다고 강조하였다.

발전소건설과정에는 무수한 난관들이 막아나섰지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는 그 모든것을 이겨내고 변혁을 안아오게 하는 강대한 힘의 원천이였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과 국가의 주요회의들과 여러 계기에 단천발전소건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며 혁명적인 대책들을 련이어 취해주시고 준공에 앞서 발전소종업원들의 살림집을 손색없이 잘 꾸려줄데 대하여서도 일일이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전국도처에서 방대하고 통이 큰 건설사업들이 전개되는 속에서도 이처럼 거창한 창조물들이 솟아오를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여러해동안 자연과의 투쟁을 벌리고있는 건설자들의 수고를 헤아리시여 베풀어주신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정을 자양으로 하여 애국으로 단합되고 정예화된 대부대, 힘있는 자연의 정복자들이 자라난것은 단천발전소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값지고 귀중한 성과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공사임무와 작업조건에서는 차이가 있었어도 어느 려단, 어느 대대에서나 한결같은것은 조국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건설자들의 참된 애국심이였다고 하면서 그는 단천발전소 1 단계 건설과정에 솟아난

자랑찬 창조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애국리념과 혁명령도에 무한히 충실하여 자력으로 부강의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 혁명가들의 모습, 조선사람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는 력사적기념비이라고 언명하였다. 총리동지는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투쟁목표들을 점령하는데서 단천발전소건설사단은 줄기찬 개척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계속혁신, 련속도약의 기상을 높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 단계 건설에 진입한 모든 려단들이 양양된 투쟁정신과 기세로 매일 공사과제를 넘쳐 수행해나가고있는것은 방대한 발전소건설을 능히 앞당겨 완공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해주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1 단계 건설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에 토대하여 능률적인 건설장비들을 보강하고 수력구조물건설에서 전문화수준을 더욱 높임으로써 모든 건설대상들을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련관단위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세계적인 안목에서 선진과학기술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 발전설비생산과 조립에서 최상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단천발전소가 명실공히 국가경제의 전망적발전을 확고히 담보하고 견인하는 나라의 믿음직한 동력기지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총리동지는 전체 건설자들이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에 빛나는 새 페이지를 아로새긴 자부와 기개드높이 더욱 과감히 분기하여 발전소건설의 완공을 반드시 안아오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단천발전소 1 단계 준공을 선포하였다.

박태성동지가 준공테프를 끊었다.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이 땅위에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펼쳐가는 위대한 당중앙에 드리는 전인민적송가가 울려퍼지고 경축의 꽃보라가 흠날리는 속에 준공식장은 자력의 창조물을 보란듯이 일떠세운 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애국성업에 분투해나갈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준공식에 이어 발전소건설자들을 축하하는 공연무대가 펼쳐지고 황홀한 축포탄들이 터져올라 준공의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었다.

준공식참가자들은 단천 1 호, 5 호발전소와 언제, 종업원살림집 등을 돌아보았다.

단천발전소 1 단계 준공식은 자력의 의지와 완강한 개척의 보무로 부닥치는 난관을 강용히 딛고 넘으며 부흥강국의 래일을 확신성있게 열어나가는 주체조선의 불굴의 창조정신과 자기의 힘을 믿고 당의 령도따라 승리에서 보다 큰 승리를 향해 용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뚜렷이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지방변혁의 시대가 안아온 새 생활, 새 풍경 앞에는 새 공장, 뒤에는 새 살림집



금야군에서

금야군 읍지구에는 한쪽의 그림과도 같은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져있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새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자리잡은 새 지방공업공장들의 자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여기에서는 누구나 선뜻 걸음을 떼지 못한다.

그리고 시인이 된듯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걱정을 더놓는다.

앞에는 새 공장, 뒤에는 새 살림집!

전면적국가부흥의 새 력사가 흐르는 이 땅의 전변상을 가장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하는 이 전경이야말로 지방이 변하는 시대를 보여주는 명화폭이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시대에는 중앙이 지방을 부러워하게 하고 지방의 진흥이 우리 국가의 전진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으로 되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구상입니다.》

황금나락 물결치는 벌을 끼고있어 그 이름도 유명한 금야군이다.

오곡이 무르익는 전야, 바로 이것이 수수천년 내려온 이 고장 사람들의 자랑의 전부였고 행복의 밑천이었다.

그러나 지방변혁의 시대에 다른 고장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과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서면서 자기 고장의 자랑에 대하여 달리 생각하게 된 이들이다.

오늘도 이 고장 사람들은 너무도 빨리, 너무도 크게 찾아온 문명과 행복에 대하여 말할 때면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한다.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농촌건설구상에 따라 몇해전 금야군 읍농장마을에도 새 전경도가 세워졌다.

그때 많은 농장원들은 평양의 경루동을 옮겨놓은것만 같다고, 농사꾼들이 호화주택에서 사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저저마다 기뻐하며 그앞을 떠나지 못하였다. 얼마후 산기슭을 따라 아름다운 문화주택들이 솟아났으며 농장원들은 희

한한 살림집의 주인이 되어 새 생활, 새 문명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그런데 수십일후 그들이 자기들이 누리는 문명의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미처 새겨안기도 전에 또 다른 복이 찾아올줄 어찌 알았겠는가.

그때를 생각하며 마을의 한 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당에서 안겨준 크고 희한한 새집에 보금자리를 펴고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몇번이나 눈을 비벼보았습니다.

조상대대로 한뼘 농사밖에 한것이 없는 우리 농사군집안에 이런 복이 차례졌으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 밤잠을 잇고 살았지요. 그런데 새집을 받아안은지 두달도 안되어 지방공업공장들이 준공하고 거기에서 쏟아져나오는 제품들이 집집마다에 흘러들 때 우리 마을사람들은 기쁨보다 놀라움이 더 컸습니다. 세상에 복이 이렇게 올 때도 있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너무도 짧은 기간에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대하면서 우리 당이 안겨주는 지방문명, 농촌문명이란 어떤것인가를 동시에 실물로 체감하게 되었으며 자기 군을 보는 시야도 달라지게 되었다.

생활환경에서의 개변은 사람들의 의식령역에서도 새로운 개변을 가져왔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 이웃하고있는 농촌 살림집과 지방공업공장들을 두고 앞집, 뒤집이라고 정담아 부르고있다.

그곳에서 살며 일하는 농장원들과 공장 로동자들도 다정한 이웃이 되어 서로 배우고 배워주며 혁신의 보폭을 기운차게 내짚고있다.

지난날 농장적으로 제일 뒤떨어졌던 제 3작업반이 오늘은 혁신자집단으로 될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말할 때 작업반원들은 하나같이 지방공업공장 로동

자들에게서 배운 덕이라고 이야기하군 한다.

지방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마음으로 낮에 밤을 이어 뜨거운 지성과 열정을 다하는 로동계급, 군인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제품들을 안겨주고 당의 지방발전정책이 더 활짝 꽃피나게 하자면 더 많이 알고 배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사람들,

출근시간에도 퇴근시간에도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학습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농장원들은 자신들을 돌이켜보았으며 분발심을 키워나갔다.

그때부터 작업반원들은 농업과학기술지식습득에 정열과 노력을 다 바치였고 이로 하여 농촌마을에는 전에 없던 학습열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말이지 이곳 농장원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살림집과 나란히 서있는 지방공업공장들은 로동계급의 정신과 생활문화를 배우게 하는 또 하나의 큰집이기도 하였다.

오늘 이곳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있다.

정녕 이 고장의 전변은 지방공업혁명, 농촌혁명을 개시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앞에는 새 공장, 뒤에는 새 살림집, 금야군에서 이곳이 차지하는 면적은 크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안아보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를 펼쳐 사람도 산천도 가장 빨리 몰라보게 변하게 하는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현명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축도로서 나날이 더 멋있고 번창해질 우리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게 한다는것이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 11 차대회 진행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 11 차대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청년동맹사업정형이 전면적으로 총화되고 청년대군의 거대한 힘을 우리당 투쟁강령실현에로 결집시켜 사회주의전면적룡성발전의 강위력한 추진력으로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실천과업과 방도들이 토의되었다.

대회에는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당,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청소년교양관계부문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대회에서는 집행부와 서기부를 선거하였다.

대회에서 상정토의된 의정들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2.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하여

3.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지도기관 선거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 11 차대회 참가자들과 전국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재룡동지가 전달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동지가 하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는 청년동맹앞에 나서는 새로운 투쟁과업과 청년동맹건설의 원리에 맞게 수정보충되는 규약의 내용들을 개괄하였다. 그는 개정되는 청년동맹규약에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로서의 면모를 정제화하고 동맹의 조직력과 단결력, 활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요구가 반영된데 대

하여 언급하면서 본 대회 심의에 제기하였다.

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으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토의하였다.

먼저 청년동맹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추천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후보자들 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으로 선거되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 11기 제 1 차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주창일 동지가 제 11기 제 1 차전원회의 결정내용을 발표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선거되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백은철 동지가, 부위원장들로 김주혁 동지, 박명진

동지, 왕철우 동지, 김성일 동지, 리명혁 동지, 김성일 동지가 선거되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이 선거되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장들이 임명되었다.

대회는 새로 선거된 제 11기 청년동맹중앙지도기관 성원들로 대회결정서초안작성위원회를 선거하였으며 위원회는 대표자들이 제기한 창발적이며 건설적인 의견들을 심의하고 결정서초안에 보충반영하였다.

청년동맹 제 11 차대회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전체 대표자들의 일심충성의 열정속에 채택되었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합창으로 끝났다. (끝)

전국적으로 올해 봄철에 1억 수천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국토환경보호성에서는 봄철나무심기와 관련한 시, 군들의 사업계획들을 검토하고 지방공업공장들에 원료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용재림, 기름나무림, 종이원료림조성에 힘을 넣도록 하고있다.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지도국과 각지 산림부문에서도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맞게 일별, 주별계획을 세우고 산림복구사업을 과학적으로 전망성있게 내밀고있다.

각 도들에서는 시, 군들에서 조립대상지선정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나무의 생물학적특성과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조건에 맞는 수종을 선택한데 기초하여 공정별작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면서 계획한 면적에 나무심기를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과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억 수천만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끝)

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한 투쟁기세 계속 고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점령할 일념을 안고 분기해나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의 투쟁기세가 날로 고조되는 속에 각지에서 모내기성파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연백벌에서

연백벌에서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선전선동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모내기가 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일정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 수행에서 완강성을 발휘하고있다.

연안군의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를 자랑스런 알곡증산성파로 빛내일 한마음으로 모내기에 성실한 땀을 바치고있다. 군에서는 부속품을 비롯한 영농물자보장을 앞세우면서 농기계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있다. 모내기실적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어느 단위에서나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배천군에서는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다그쳐 끝내기 위한 대책들을 예견성있게 세워 매일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특히 농장들에 파견할 선전선동력량을 강력히 편성하는것과 함께 방송선전차활동을 강화하고 포전방송기재들을 전개하여 모내기현장이 법석 끓게 하고있다.

각종 농기계수리정비를 높은 수준에서 결속하고 기세충천하여 모내기에 진입한 청단군 청정, 대풍, 남촌농장에서는 농기계운전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관심을 돌리고있다. 이 농장들의 모내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온천벌에서

온천벌이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의 양양된 기세로 하여 세차게 약동하고있다.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 알곡증산의 담보를 마련할 각오밑에 온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벼모영양관리에 큰 힘을 넣고있다.

씨레치기와 수평고루기 등을 계획대로 내밀고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고있다.

군안의 공장, 기업소근로자들, 가두녀맹원들도 포전에 나가 농업근로자들과 올해 농사를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에서 말은 과제를 드팀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농장에 깃들어있는 당의 령도업적을 높은 알곡증산성파로 빛내일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선 석치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모내기성파를 확대하고있다. 원읍농장에서 모내기와 관련한 보여주기사업, 모내는기계운전공들의 기술기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한데 이어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이동수리대책까지 빈틈없이 세워 모내기를 일정대로 내밀고있을 때 읍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일자리를 폭폭 내고있다. 다른 농장들에서도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함흥벌에서

함흥벌도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지고있다.
함주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긴장
한 분분초초를 이어가고있다.
군일군들은 모내기를 최적기에 결속할 각
오밑에 로력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등 실무적대책을 현실성있게 세웠다.
벼모의 영양관리를 잘하여 모내기가 중
단되지 않도록 실한 모를 어김없이 보장하
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농기계의 만가
동보장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날자별, 포전별, 필지별
에 따르는 모내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
기 위해 씨뿌린 날자와 벼모의 생육학적
특성을 따져가면서 헌신하고있다.

년초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
어 한해 농사에 유리한 조건들을 마련해
놓은 정평군에서 모내기에 총력을 기울이
고있다. 씨레치기를 비롯한 선행공정을 확
고히 앞세우고 기술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모내기의 모든 공정들이 과학기술적요구
에 맞게 진척되도록 하고있다. 양수설비들
의 만가동보장대책을 면밀하게 세우고 양
수공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논에 물을
지장없이 충분히 대주고있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
을 깊이 새긴 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모내
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하여
분투하고있다.



-봉천군 황룡농장에서-

우리의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 2026년 아시아축구련맹 17살미만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1위 쟁취

2026년 아시아축구련맹 17살미만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 우리 나라 팀과 일본팀과의 결승경기가 17일에 진행되었다.

필승의 신심드높이 경기에 진입한 우리 선수들은 시작부터 주도권을 틀어쥐고 드센 공격을 들이댔다.

경기시간 30분경 우리 팀의 10번 유정향선수가 정확한 차넣기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후반전에 들어와서도 상대팀을 압박하던 우리 팀에서 경기시간 50분경 유정향선수가 두번째 골을 넣은데 이어 55분경에는 15번 김원심선수가, 81분경과 89분경에는 유정향선수가 련이어 득점에 성공하였다.

결국 우리 선수들은 일본팀을 5:1로 이기고 영예의 우승을 쟁취하였다.

유정향선수는 결승경기에서 4 골을 넣음으로써 해트트릭을 하였다.

우리 선수들은 이번 경기대회 조별련맹전경기부터 시작하여 결승경기에 이르는 6차례의 대전에서 전승을 기록하였으며 도합 36개의 득점을 기록하였다.

시상식에서는 2026년 아시아축구련맹 17살미만 여자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1위를 한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이, 유정향선수에게 최우수선수상과 최고득점자상이, 김선경선수에게 최우수문지기상이, 우리 나라 팀에 경기도덕상이 수여되었다.

우리의 미더운 여자축구선수들이 거둔 자랑찬 경기성과는 당 제9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개척기를 일대 고조기, 줄기찬 변혁의 전성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우리 나라의 내고향팀 2025년-2026년 아시아축구련맹 여자선수권보유자련맹전 우승컵 쟁취

우리 나라의 내고향팀이 2025년-2026년 아시아축구련맹 여자선수권보유자련맹전에서 1위를 하고 영예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해 8월과 11월 라오스와 만마에서 있던 예선단계 경기와 조별단계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내고향팀선수들은 지난 3월 28일과 5월 20일에 진행된 준준결승, 준결승경기들에서 월남의 호지명시팀, 한국의 수원팀을 각각 3:0, 2:1로 누르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우리 나라의 내고향팀과 일본의 도쿄베르디 벨레자팀사이의 결승경기가 23일에 진행되었다. 만만치 않은 두 팀사이의 대전인것으로 하여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전을 이루었다.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리면서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해나갔던 우리 팀에서 경기시간 44분경 17번 김경

영선수가 정확한 차넣기로 득점에 성공하였다.

후반전에 들어와 랑팀 선수들의 경기활동은 맹렬하였지만 더이상 득점이 나지 않았다. 결국 아시아의 최우수여자축구팀(구락부팀)을 결정하는 결승경기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일본선수들을 1:0으로 이겼다.

시상식에서는 2025년-2026년 아시아축구련맹 여자선수권보유자련맹전에서 1위를 한 우리 나라의 내고향팀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이, 김경영선수에게 최우수선수상이 수여되었다.

내고향팀 여자축구선수들이 거둔 자랑스러운 경기성과는 당 제9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면적룡성기를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6 차 전체대회 진행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6 차 전체대회가 23일과 24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제 1 부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 배진구, 조일연, 서충언, 강추련 부의장들,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상임위원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총련본부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의 책임일군들, 중앙감사위원들, 총련의 각급 기관, 단체, 사업체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6 차 전체대회에 보낸 축전을 남승우부의장이 낭독하였다.

대회에서는 자격심사보고가 있는 다음 대회 의안으로 《총련의 제 25 기 사업총화와 제 26 기 과업에 대하여》, 《총련강령 및 규약의 개정에 대하여》, 《제 25 기 재정결산 및 제 26 기 예산안에 대하여》, 《총련중앙기관 역원선거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박구호제 1 부의장 겸 조직국장이 총련 제 26 차 전체대회 첫째 의안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총화기간 총련이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세심한 령도와 친어버이의 사랑속에서 애국사업을 즐기치게 벌려온데 대하여서와 총련결성 80돐까지를 새로운 투쟁기로 내세우고 애국애족운동을 즐기치게 벌려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제 26 기 총련의 주력과업을 제시하고 새로운 투쟁기의 요구에 맞게 총련의 주체적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끝으로 그는 제 26 차 전체대회 대의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주체위업과 총련애국위업의 승리는 과학이라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동포들의 애국적힘을 유일무이한 원동력으로 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조국의 각 기관, 단체들과 일군들 그리고 해외동포단체들, 일본의 각 단체 및 개별인사들, 해외의 친선단체들이 보내온 축전들과 축하인사록화편집물이 소개되었다. 재일조선청소년학생대표들이 대회장에 입장하여 총련 제 26 차 전체대회를 축하하였다. 리명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회 사업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안인 총련중앙위원회 보고를 대회결정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둘째 의안인 총련강령 및 규약개정심의위원회 보고, 셋째 의안인 재정결산 및 예산안심의위원회 보고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허종만동지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으로 선거하였다.

또한 제 1 부의장, 부의장, 사무총국장, 총련중앙위원회 위원과 중앙감사위원회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대회가 끝난 다음 총련중앙위원회 제 26기 제 1차회의에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련중앙감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선출하였다.

대회기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6 차 전체대회를 축하하는 공연과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총련의 민족교육사업발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있었다. (끝)

/로동신문

녹아든 《사계절의 노래》, 연길의 미를 노래하다



봄별이 유난히도 정겹던 5 월의 문턱. 연길시문화관 극장에서 문화의 향연이 펼쳐졌다.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가 정성스레 빚어낸 민속풍정시화 <사계절의 노래 (四季如歌)>가 5 월 1 일부터 이튿날까지 이곳을 찾은 이들의 마음을 적셨다. 하나의 공연을 넘어 연변의 숨결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이 무대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가슴마다에 《연길의 정서》라는 꽃을 살며시 놓아주었다.

이미 《남쪽에는 <운남영상>, 북쪽에는 <사계절의 노래>》라는 찬사를 들어온 이 작품은 조선족 문화의 깊은 뿌리에서 움튼 예술의 나무와 같다. 여러번의 계절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지고 또렷해진 2026 년판 무대는 전통의 혼을 지키면서도 현대요소를 가미했다.

중화민족공동체라는 굳건한 줄기를 중심으로 조선족 전통예술과 시대적 품미가 어우러져 《가무의 고향》이 품은 매력을 한껏 토해냈다. 그 속에서 관람객들은 다채롭지만 하나로 이어지는 중화민족의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었다.

《연길식 생활방식》이라는 주제 아래 펼쳐진 헤민 공연은 《사계절》이라는 흐름에 몸을 맡긴 듯 유연했다. 조선족 전통예술을 뼈대로 현대 무대 기술을 날개로 삼아 장고춤, 상모춤, 부채춤 등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유산들이 하나둘 깨어났다.

<사물놀이>의 경쾌한 장단, <붉은해 변강 비추네>의 뜨거운 선율은 관객의 심장을 두드렸다. 빙글빙글 도는 상모의 색동 띠, 장단에 맞춰 울려 퍼지는 장고의 숨소리, 애절하고도 달콤한 민요의 물결은 눈부신 조명과 몰입형 무대예술과 만나 연변 대지의 봄·여름·가을·겨울과 그우에 깃든 조선족 백성의 정겨운 마음을 한쪽의 수목화처럼 펼쳐보였다. 공연이 끝난 뒤 한 외지관광객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사계절의 노래>는 연길에 오면 꼭 봐야 한다고 들었어요. 오늘 가족과 함께 왔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짙은 민속의 정취는 처음이에요.》 이번 헤민 공연은 볼거

리를 넘어 명절 편후의 풍성한 선물이자 조선족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창이 되었다. 이제 <사계절의 노래>는 더 이상 한순간의 축제에 머물지 않는다. 앞으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 연길시문화관 극장에서 관람객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계절이 바뀌어도 꺼지지 않는 무대, 풍경이 있고 언제나 즐길거리 넘치는 연길만의 문화관광 세상을 꿈꾸며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마다 연변의 민속이 사랑살랑 피어나리라.

/흑룡강신문

산재지역에서 27년째 지켜온 전통문화의 뿌리

한 회원은 《한 이태 동안은 활동실이 없어 황회장네 집에 찾아가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며 지냈습니다.》고 말하며 황영애 회장에게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황영애 회장은 《모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 로인들의 일상 살림을 위해서, 우리 민족 단결의 힘을 내기 위해서입니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뜻깊은 후원과 민족문화에 대한 다짐

공주령시곽곽의료미용소의 곽선자씨를 비롯한 세 남매는 해마다 1만여원씩 공주령시조선족로인협회에 후원해왔다. 곽선자는 중병을 앓으며 심장에 스텐트를 여러개 달고 있는 상황에서도 두 동생과 함께 꾸준히 협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

황영애 회장은 《진짜 적지 않은 액수》라며 곽선자 세



남매를 크게 칭찬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분들이 후원 의사를 비쳐오면 <그만 하시라!>고 사양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분들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업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협회의 발전에 공헌이 큼니다.》 황영애 회장은 《현재 협회는 될수록 자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황영애 회장은 《우리 협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더욱더 열심히 민족의 문화와 글, 생활방식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힘쓰겠습니다.》고 말했다. 길림성 공주령시조선족로인협회는 1999년 9월에 설립되었다. 당시 공주령시중심병원의 외과수술실 간호사였던 47세의 황영애(현임 회장)가 관련 부문과 끊임없이 소통한 끝에 협회 설립을 이끌어냈다.

2015년 9월 7일 협회는 정식 등록을 마쳤으며 당시 회원 수가 114명이었고 지금은 70여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듬해 5월에 당지부를 세웠는데 현재 유치원 교원 직에서 퇴직한 리춘화가 당지부 서기를 맡고 있으며 협회에서 민족특색이 있는 전통춤을 가르치고 있다.

2021년부터 협회 부회장 직을 맡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회장 바통을 이어받은 황영애 회장은 《리춘화 서기는 일을 매우 성실하게 잘하고 매우 유능합니다. 여러 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협회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회원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협회는 법률과 정책을 지키면서 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체육 활동을 펼치며 가정이나 이웃간의 분쟁 조정도 맡아하고 있으며 경제·사회 발전에 참여하도록 회원들을 돕고 정부가 주최하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위문공연과 민속문화축제로 이어가는 전통

2023년, 8.1 건군절을 앞두고 협회 당지부는 11명의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길림성제 1영복군인병원을 찾아갔다. 비록 화려한 무대는 아니었지만 여성 2중창 〈홍호의 물결이 출렁이네〉, 남녀 2중창 〈보름달〉, 여성독창 〈홍매화 찬가〉, 태평소 독주 〈우리 군인된 이들〉, 남성 4중창 〈나는 한 병사〉, 〈작은 백양나무〉 등 군가와 부채춤이 이어졌다. 특히 협회 자원봉사자들이 선보인 〈장고춤〉은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 마지막에는 현장의 모든 이들이 함께 〈중국인민지원군 군가〉를 제창했다.

제대군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협회의 자원봉사자들을 열싸안고 《당과 정부, 조국과 사회가 우리를 잊지 않아서 고맙습니다.》고 말하며 감격해했다.

2015년과 2016년 단오절에는 협회와 로인대학의 공동 주관으로 공주령시조선족민속문화축제를 열었는데 협회에서는 팽파리와 새장구, 북을 치며 길거리공연을 펼치기도 했는데 공주령시 진가툰진 조선족촌에서 이어온 이 공연은 조선족 특색이 살아있고 흥을 돋우어 펼쳐지는 곳마다에서 인기가 절정을 이루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일, 장춘시 조선족 전통문화축제 현장에서 공주령시조선족로인협회 회원들의 길거리공연은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찬탄을 자아냈다.

사비 아끼지 않은 헌신, 로인들의 보금자리 지키다

협회는 2024년 12월에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소속으로 된 후로는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황영애 회장이 〈회원들에게 바깥구경도 시키고 코바람도 좀 쉬게 해주려는〉 마음에서이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묵묵히 헌신하는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황영애가 부회장, 회장을 맡은 이후에도 협회는 여러차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솔선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찾았다. 몇년 전부터 활동실 임대료가 없을 때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 집세를 내기도 했다.

/흑룡강신문

2026 연변주조선족민속장기 초청경기 개최

전국각지 장기애호가 총 56명 참가... 우승에 리철산

5월 23일, 2026 연변주조선족민속장기 초청경기가 카슨(길림)세포자원관리유한회사에서 열렸다. 본 대회에는 료녕성 심양, 단둥 및 연변주의 안도, 통정, 연길, 훈춘, 왕청, 도문, 화룡 등 6개 현시 장기협회 소속 장기애호가 총 56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해외 및 국내 장기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로 개최되었다. 미국에서 온 손명익선생은 대회에 1만 5,000 원을 후원하며 대회 개최에 큰 힘을 보탰다. 중국조선족장기련합회 류상룡회장, 비서장인 최상화, 부심판장인 리홍일 등도 특별히 연길을 찾아 교류경기에 참가했다. 최상화, 리원석, 김광명 등 여러 기업인들과 각지 협회 지도자들도 물심량면으로 후원하며 조선족 민속장기문화 발전에 큰 힘을 보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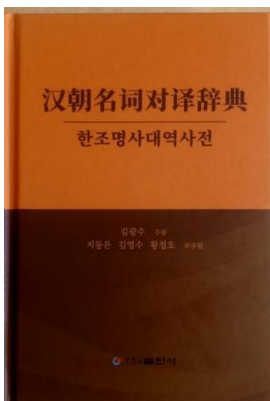
장기대회에서 1 등부터 8 등까지 차지한 장기선수들

치열한 접전을 거쳐 최종 8 강 순위가 확정됐는데 연길시의 리철산이 우승을 차지했고 한련호, 류상룡, 조귀철, 조룡호, 김창호, 심창호, 전진성 등이 2 등부터 8 등까지 차지했다.

본 대회는 장기를 매개로 우정을 나누고 기량을 연마했으며 연변 장기선수들의 뛰어난 장기 실력과 경기면모를 보여줬다. 또한 국내외 조선족 장기애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민속장기문화 교류의 중요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조선족 전통문화체육사업의 발전을 이끌고 민속장기문화를 전승, 발전시켜 나갈 타산이다.

/길림신문

《한조명사대역사전》 출간



연변대학 김광수 교수가 주필을 맡고 지동은, 김영수, 황정호 교수가 부주필로 편찬한 《한조명사대역사전》이 최근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에서 출판, 발행되었다.

이 사전은 중국조선어규범위원회가 2007 년부터 2023 년까지 규범화한 일상용어와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신조어 및 전문용어를 수록하였으며 총 만 9,829 개의 한어 용어와 이에 대응하는 조선어 용어가 포함되었다.

사전에 수록된 모든 한어 표제어의 발음은 중국교육부와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가 공포한 <한어병음방안>, <통용규범한자표>, <표준말이독사심음표(普通话异读词审音表)>를 규범적 근거로 하였으며 《현대한어사전》(제 7 판)의 표기에 따라 확정되었다.

/길림신문

전국 31 개 성(자치구, 직할시) 《15. 5》 계획강요 모두 공포

북경 5월 26일발 신화통신: 최근 하남성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 15차 5개년 계획강요가 대외에 공포되었다. 이로써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15. 5》 계획강요가 모두 공포되었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15. 5》 계획강요는 당중앙 제 20기 제 4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된 《15. 5》 계획건의와 각 성급 당위원회에서 제정한 《15. 5》 계획건의에 근거해 편성되었는바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경제 및 사회 발전 목표와 경로를 천명했다. 기자는 분석을 통해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15. 5》 계획강요는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 추진에 대해 명확히 했으며 그중 절대다수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15. 5》 계획기간의 지역총생산 년평균 성장목표를 공포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올해 3월에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차 회의에서 통과된 《15. 5》 계획강요를 보면 《현대화산업체계를 구축해 실물경제라는 경제의 근본기반을 다지고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중대한 전략적 과업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 따라서 많은 성(자치구, 직할시)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현대화산업체계의 구축》, 《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현대화산업체계의 구축》 등을 《15. 5》 계획강요의 핵심내용으로 삼았다. 많은 성(자치구, 직할시)들은 새로운 산업발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생물제조, 특색수소에너지, 디지털경제 등 면에서 전망적으로 배치했다.

내수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동력이다. 복건성에서는 양로, 보육, 가사 등 서비스 소비의 편리화, 표준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제시하고 호북성에서는 민간자본이 철도, 수력발전, 급수 등 분야의 일정한 수익이 있는 프로젝트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한다고 제시했다... 이처럼 잠재력이 있는 소비를 적극 활성화시키고 효익이 있는 투자를 힘써 확대하기 위해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는 그 《15. 5》 계획강요에서 모두 내수확대에 대해 목적성 있게 포치했다.

개혁은 나라의 발전을 추진하는 근본동력이다. 중경시에서는 성유지역 쌍성경제권 시장일체화건설에 대해 포치하고 감숙성에서는 새로운 경영형태와 새로운 분야의 시장접근환경 최적화, 지방보호와 시장분할 타파에 대해 명확히 했다... 이처럼 많은 성(자치구, 직할시)들에서는 목표달성과 문제해결을 방향으로 하는 것을 견지해 그 《15. 5》 계획강요에서 개혁심화를 통해 장애와 폐단을 제거하고 잠재력을 방출시키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 건설에 적극 융합하면서 우위의 상호보완과 협동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을 확보하는 것이다.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15. 5》 계획강요를 보면 <취업안정화>가 모두 민생사업목록의 앞자리에 포치되었다. 이와 동시에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좋은 교육 받기>, <치료난>, <좋은 집>건설, <일로일소> 등과 같은 인민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목적성 있게 포치했다. 청화대학 중국발전계획연구원 상무부원장 동옥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는 그 《15. 5》 계획강요를 통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요구를 긴밀히 둘러싸고 관련 분야에서 대표적인 돌파를 힘써 가져오고 지방의 비교우위를 보다 잘 발휘해 발전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인민넷-조문판

6 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우리 생활에 영향 미쳐!

2026 년 6 월부터 일련의 법규정책들이 시행된다.

《유형배달》 단속, 온라인음식점 전 과정 엄격히 관리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고 먹는 것은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

2026 년 6 월 1 일부터 <온라인음식서비스경영자 식품안전 주체적 책임 감독관리규정>이 정식 실시되는데 이는 온라인음식서비스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보장을 목표로 한다.

《피로운전》 인정규칙 적용범위 명확히 해

공공안전업계 권장기준인 <동력엔진차량 운전자 피로운전 인정규칙>(GA/T 2372—2026)이 6 월 1 일부터 실시된다.

인정규칙에 따라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로운전으로 인정된다.

4 시간 이상 연속 운전, 무정차 또는 주차휴식시간이 20 분 미만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22:00 부터 다음날 6:00 까지 2 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고 쉬지 않거나 휴식시간이 10 분 미만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24 시간내 루적 운전시간이 8 시간을 초과한 경우.

질병통제 영역 8 가지 새로운 표준 실시 예정

6 월 1 일부터 국가질병통제국에서 발부한 8 가지 표준이 정식 실시된다.

각각 <오수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측기술규범>, <기생충병 명사용어>, <학생들에게 흔한 질병과 건강영향요인 검측기술규범>, <전자의무기록에 기반한 전염병증후군 검측데이터원>, <전염병검측예비정보 기본업무지표체계지침>, <실험실 병원검측업무 협동데이터집>, <실험실 병원 검측 협동정보 인터페이스기술규범>, <상해예방통제용어표준>이다.

영업비밀 보호 보완, 고수준 개방 호위

6 월 1 일부터 <영업비밀보호규정>이 실시된다. 새 규정은 법률조항을 세분화하고 국제규칙에 접목하여 보호가 명확하고 점검할 수 있게 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견인한다.

훈련심사 규범화, 생산안전사고 예방

6 월 1 일부터 <특수업무인원 안전기술훈련평가관리규정>이 시행된다. <규정>은 특수업무인원 안전기술훈련평가업무를 표준화하고 특수업무인원의 안전기술수준을 향상시키며 생산안전사고를 예방,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수안전 보장, 민생발전 호위

<급수조례>가 6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급수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고 급수안전을 보장하며 급수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사회발전과 인민생활의 수요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원과 생태보호 강화, 광업 고품질발전 추진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조례>가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개정된 광물자원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리용을 촉진하며 광물자원과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하고 광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며 광물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통사고배상 관련 새로운 규정 시행

6월 30일부터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심리 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이 정식 시행된다.

<해석(2)>은 총 12조로 책임주체, 책임인정, 배상계산, 절차규정 등 방면에서 규정을 제정했다. /인민넷-조문판

중국우주비행사들, 8번째 《우주합류》 달성

중국유인우주비행 관공실의 소식에 따르면 유인우주선과 우주정거장 조합체가 성공적으로 도킹을 마친 후 신주 23호 우주비행사 승무조가 귀환캡슐에서 궤도캡슐로 순조롭게 진입했다.

북경시간 2026년 5월 25일 5시 13분,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신주 21호 우주비행사 승무조가 《집문》을 열고 먼 길을 온 신주 23호 승무조의 중국우주정거장 입주를 환영했다.

이는 중국 우주력사상 8번째 《우주합류(太空会师)》이자 《천궁》이 향항출신 우주비행사의 첫 입주를 기록한 순간이다.

이후 두 승무조는 《가족사진》을 촬영하며 자신들을 걱정하는 전국 인민에게 안부를 전했다.

앞으로 두 승무조는 우주정거장에서 궤도내 교대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인민넷



전국 인구 14억 545만명, 인구 성별비례 104.21

5월 22일, 국가통계국이 2025년 전국 1% 인구 표본조사 주요 데이터 공보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근거하여 추산한 인구의 주요 수치가 다음과 같다.

■ 전국 인구

전국 인구는 14억 545만명이다. 그중에서 남성 인구가 7억 1,722만명으로 51.03%를 차지하고 여성 인구가 6억 8,823명으로 48.97%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 성별비례(여성 100, 남성 대 여성 비례)는 104.21이다.

■ 가구 인구

전국에 포함 5억 1,465만 가구가 있고 가구 인구는 12억 9,685만명이다. 가구당 평균 인구는 2.52명이다.

■ 연령 구성

전국 인구에서 0~14세 인구가 2억 1,436만명으로 15.25%를 차지한다. 15~59세 인구가 8억 6,987만명으로 61.89%를 차지한다. 60세 이상 인구가 3억 2,122만명으로 22.86%를 차지, 그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억 2,309만명으로 15.87%를 차지한다.

■ 다양한 교육수준 인구

전국 인구중에서 대학(전문대 및 그 이상을 가리킴) 문화수준을 가진 인구가 2억 7,233만명, 고중(중등전문학교 포함) 문화수준을 가진 인구가 2억 4,272만명, 초중 문화수준을 가진 인구가 4억 5,283만명, 소학교 문화수준을 가진 인구가 3억 3,122만명이었다.

■ 도시와 농촌 인구

전국 인구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9억 5,208만명으로 67.74%를 차지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4억 5,337명으로 32.26%를 차지한다.

■ 류동 인구

전국 인구중에서 류동인구가 3억 5,788만명이다.

/CCTV 넷

6 가지 발암촉진식품, 많은 사람들 매일 섭취

의사는 6 가지 류형의 식품이 세계보건기구 등 기구에 의해 암의 발생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되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당도가 높은 음식

고당식단은 암세포의 <에너지쾌속선>으로 간주된다. 암세포는 <유산소 해당과정>에 의존하여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리용하며 고당도환경은 인슐린류사성장인자의 분비를 자극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한다.



뜨거운 음식

온도가 65° C를 초과하는 음식은 식도점막에 반복적인 손상을 입히며 회복과정에서 주로 식도편평암, 후두암 및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암억제유전자돌연변이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고염식단

과도한 염분섭취는 위점막 장벽을 파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여 위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절임음식

아질산염은 식품을 절이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위내 단백질분해산물과 결합하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할 수 있다. 소금에 절인 생선 등 절임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는 지역에서는 위암과 비인두암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육제품, 특히 훈제식품

《영국의학잡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의 대량 섭취는 대장암위험 증가와 21% 관련이 있다고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훈제육류인데 훈제과정에서 생성되는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은 DNA를 파괴하여 유전자돌연변이를 일으키고 폐암, 위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곰팡이가 핀 음식

곰팡이가 핀 곡물과 견과류의 아플라톡신은 가장 강력한 화학발암물질중 하나로서 특히 간암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민넷-조문관

조선주재 중국대사관이 중조친선택암협동농장을 찾아 농촌지원활동을 전개

2026년 5월 20일, 왕아군대사가 조선주재 중국대사관의 외교관들과 주조 기자대표들을 이끌고 평양시 순안구역에 위치하고있는 중조친선택암협동농장을 찾아 농장원들과 함께 논에 들어가 모내기를 하면서 농촌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외무성 아시아 1국 윤성일과장과 택암협동농장 김홍일경리 등이 동행하였다.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끊임없이 흩날리고 전야마다에는 얇은 물안개가 덮혀있었다. 왕아군대사와 일행은 비옷을 입고 바지가랭이를 걸어올린 후 논에 들어가 조선동지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농장기술성원들의 지도하에 대사관성원들의 일부는 동음소리 요란한 모내는기계를 타고 일부는 손에 벼모를 들고 허리를 굽히면서 모보식을 하였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지만 모두의 열정은 식을줄 몰랐으며 논밭에는 하늘을 찌를듯한 열기뻔 로동의 모습들이 펼쳐졌다.

김홍일경리는 **김정은**총비서동지의 관심과 지도밑에 지난해에 농장이 대풍년을 이룩한 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계속하여 올해에 농장에서는 온실무도양모기르기와 논판관양어를 비롯한 과학선진농법들을 널리 받아들이고 농기계설비들을 개선하였으며 종업원들은 수확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제일 바쁜 농사철인 지금 중국동지들이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농촌지원을 나온것을 보면서 자기들은 참다운 조중친선에 대해 깊이 느끼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왕아군대사는 **김정은**총비서동지의 굳건한 령도밑에 조선의 농업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고 이야기하였다. 계속하여 택암농장은 중조친선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로 농촌지원을 온것은 바로 농장의 생산을 지지하고 중조 로세대령도자동지들께서 친히 마련해주신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주재 중국대사관은 앞으로도 계속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농장의 발전을 위하여 힘자라는것 지지와 방조를 제공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촌지원활동기간 왕아군대사와 일행은 중조친선실을 참관하고 농장원가정도 방문하였다. 택암농장은 1953년에 세워졌다. 1958년에 주은래총리동지와 **김일성**주석동지께서 함께 이 농장을 방문하시였으며 다음해에 농장의 이름은 중조친선택암협동농장으로 고쳐졌다.

/중국대사관

왕아군대사가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성묘하고 보수공사진척정형을 료해하였다

2026년 5월 14일~15일, 왕아군대사가 황해북도 신평군 신평읍과 강원도 원산시 신성동, 천내군 룡담구, 문천시 강철동을 련이어 찾으면서 현지에서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성묘하고 룡원보수공사진척정형을 료해하였다.

조선주재 중국대사관 국방무관 왕의승소장과 조선주재 지원군렬사찬양대표처 단조명주임, 조선화교련합회 중앙위원회 새철군위원장, 강원도화교련합회 김신희위원장, 조선외무성 아시아 1국 김영주과장,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외사국 손승복국장, 강원도인민위원회 외사국 박철민국장 등이 동행하였다.



왕아군대사와 일행은 네곳에 있는 지원군렬사릉원에 각각 성묘하면서 지원군렬사묘들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또한 술을 붓고 꽃송이를 드리며 선렬들을 추억하면서 지원군렬사들에 대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중조쌍방성원들은 룡원보호관리 및 룡원보수공사진척정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조선측성원들은 조선당과 정부가 지원군렬사릉원보수공사에 대하여 고도로 중시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도시경영성과 황해북도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신평군렬사릉원기초공사가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어 7월초에 준공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원산시 신성동과 천내군 룡담구, 문천시 강철동 련사릉원들에 대한 측량조사 및 설계가 이미 완성되어 가까운 시일안에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측은 중국동지들과 함께 의사소통과 협조를 밀접히 하여 공사과제들을 제기일안에 높은 수준에서 완성할것이라고 확답하였다.

왕아군대사는 중조쌍방공사인원들의 수고에 대하여 충분히 긍정하고 감사를 표하면서 쌍방이 긴밀히 협조하여 네곳에 있는 련사릉원들을 모두 훌륭하게 건설함으로써 선렬들을 추억하고 련사들의 영령을 위로하며 두 나라 인민들이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고도로 중시하고있다는것을 충분히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후손들이 중조친선을 훌륭히 계승하고 훌륭히 빛내어나가도록 격려하여 중조판계가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중조쌍방이 이룩한 합의에 따라 올해에 총 6개 지원군렬사릉원들이 보수를 끝마치고 완공되게 될것이다.

/중국대사관

왕아군대사가 문천시의 조선화교를 위문방문

2026년 5월 15일, 왕아군대사가 강원도 문천시에서 살고있는 조선화교인 왕경봉가정을 위문방문하였다.

조선외무성 아시아 1 국 김영주 과장과 강원도인민위원회 외사국 박철민국장, 조선화교련합회 중앙위원회 새철군위원장, 강원도 화교련합회 김신희위원장 등이 동행하였다.



왕아군대사와 일행은 왕경봉일가의 사업 및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조국의 당과 정부는 언제나 광범한 해외교포들을 걱정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계속하여 강원도에서 살고있는 조선화교들의 생활이 점점 더 좋아지는것을 보니 기쁨을 금할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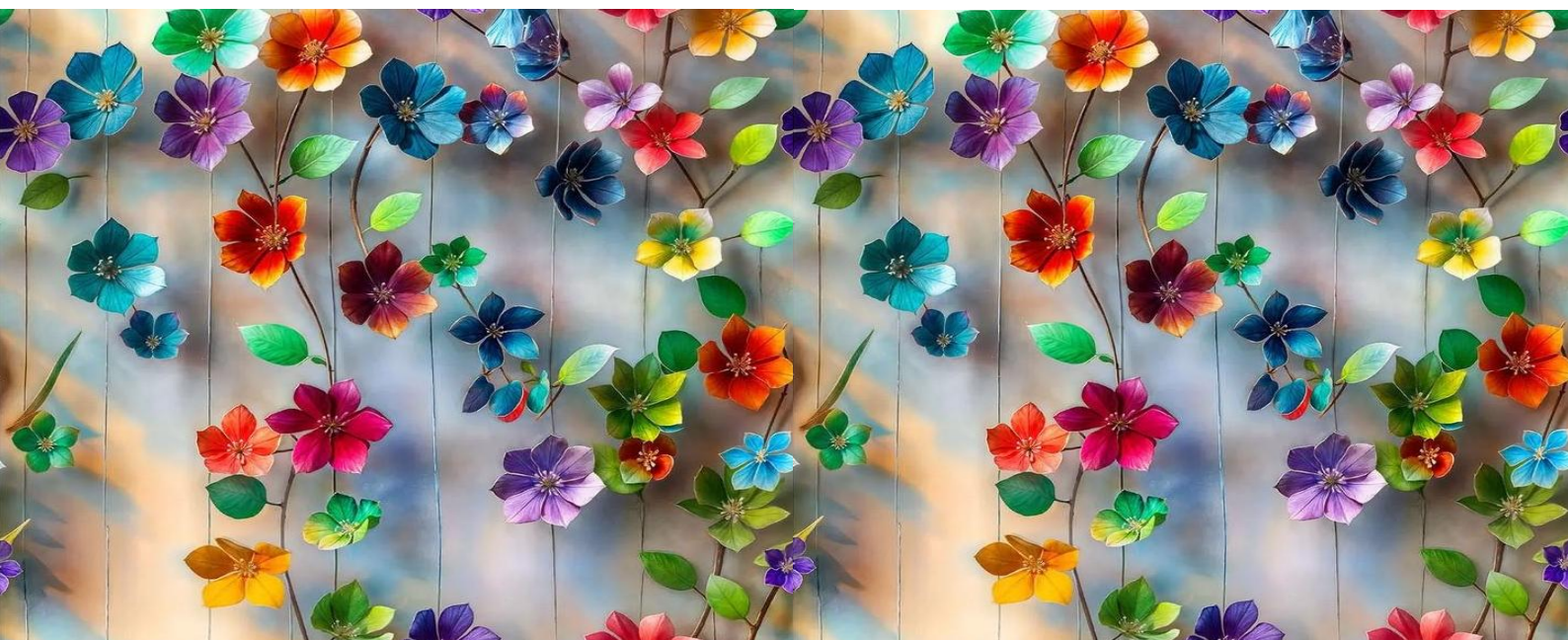
왕아군대사는 또한 조선화교들은 중조친선의 중요한 다리라고 하면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조선인민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중조사회주의건설위업과 중조친선협조를 위하여 새로운 공헌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조선주재 중국대사관은 앞으로도 외교위민의 리념을 틀어쥐고 조선화교들의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왕경봉일가는 왕아군대사가 자기들을 찾아 먼곳에까지 위문온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조국에서 온 관심과 걱정을 통하여 온 가족은 조국의 따뜻함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조선화교들은 앞으로도 계속 모든 힘을 다하여 창조하며 실지행동으로 중조 각자의 발전과 두 나라의 친선에 이바지할것이라고 결의하였다.

/중국대사관



중국 미국과 영국의 일방적제재에 강력히 대응

중국이 미국과 영국의 일방적인 제재조치들에 강력히 대응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얼마전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란과의 원유거래에 관여했다는 구실로 중국의 5개 기업체에 제재조치를 취한 미국의 행위에 중국상무부가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한것을 옹호하면서 중국은 비법적이며 일방적인 제재를 일관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의 제재조치실시를 저지시키기 위한 중국상무부의 조치는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해외적용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법에 따라 중국국민들과 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대변인은 로씨야에 무인기부분품 등 군사물자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중국기업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 영국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는 중로 두 나라사이의 정상적인 래왕과 협조는 간섭과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은 자기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끝)

/인민넷

로씨야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81돛경축 열병식 진행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81돛경축 열병식이 9일 로씨야의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노래 《정의의 싸움》이 주악되는 가운데 로씨야련방 국기와 승리의 기발이 광장에 등장하였다. 로씨야련방 대통령이며 무력최고사령관인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췌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전승절을 맞이한 로씨야의 국민들과 로병들, 병사, 사관, 군관들, 장령들, 특수군사작전에 참전한 전투원들과 지휘관들을 축하하였다.

그는 오늘 로씨야인민은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의 감정, 조국의 리익과 미래를 수호해야 한다는 공동의 의무감을 새기면서 위대한 전승세대에 대한 후손들의 진심어린 감사의 정을 안고 전승절을 경축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는 승리를 안아온 군인들의 유언과 유산을 신성하게 여기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우고있으며 위대한 조국전쟁의 사변들과 력사적진실, 진정한 영웅들에 대한 추억을 보존하는것은 영예로운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바로 쏘련인민이 나치즘을 격멸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자기나라와 세계를 구원하였으며 잔혹한 악을 끝장냄으로써 히틀러도이첼란드앞에 무릎을 꿇고 공범자로 전락되었던 나라들에 주권을 돌려주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로씨야의 군인들은 유럽인민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커다란 대가를 치르었다고 하면서 그는 그들은 용감성과 고결성, 완강성, 인간성의 체현자로 되었으며 위대한 승리로 하여 찬양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로씨야인민은 한몸이 그대로 성벽이 되어 원썩들의

앞길을 막아나섰으며 조국에 대한 충실성이 수많은 사람들을 단결시킬수 있는 최고의 정의라는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전승세대의 위대한 공훈은 오늘날 특수군사작전 임무를 수행하고있는 군인들을 고무하고있으며 그들은 나토의 무기로 장비되고 나토 전체의 지원을 받는 침략세력과 맞서 싸우고있지만英勇하게 앞으로 전진하고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의 위업은 정의이며 승리는 어제 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로씨야의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레포가 울리고 로씨야연방 국가가 주악되었다. 이어 열병행진이 시작되었다.

로씨야군인들의 열병종대들과 함께 꾸르스크를 해방하기 위한 전투들에서 불멸의 위훈을 떨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의 종대가 붉은광장을 행진하였다.

전투기들이 로씨야국기를 형상하며 광장상공을 비행하였다. 열병식이 끝난 후 올라지미르 뿌쨌동지가 크레믈리성벽결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고 희생된 쏘련군인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올라지미르 뿌쨌동지는 로병들,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과 상봉하였으며 열병식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룡해 공군혼성종대 지휘관을 만났다.

이날 썬크뜨－뻬제 르부르그, 노보씨비르스크, 울란－우데, 예까제 린부르그, 올라지보스또크를 비롯한 로씨야의 주요도시들에서도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끝)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룡해 공군혼성종대 모스크바승리열병식에 참가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5월 9일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81돛경축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룡해 공군혼성종대가 모스크바승리열병식에 참가하였다.

최영훈룡군대좌가 조선인민군 룡해 공군혼성종대를 이끌고 붉은광장을 행진하였다.

열병식이 끝난 후 로씨야연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쨌동지는 조선인민군 열병종대 지휘관을 만나 사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인민군종대는 로씨야의 초청에 따라 모스크바승리열병식에 참가하였다. (끝)

/조선중앙통신



김 응 서 와 계 월 향

김응서와 계월향은 임진조국전쟁시기 평양성탈환 싸움에 앞서 왜장의 목을 쳐서 적진을 혼란시키고 평양을 해방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오늘도 그 이야기가 우리 조선민족의 슬기를 떨친 자랑으로 사람들속에 전해오고 있다.

깊은밤. 등잔불이 가물거리며 타고있다. 어둡시근한 방안에 불빛에 비추이여 벽에 걸려있는 족자의 대나무그림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계월향은 등잔의 심지를 돋구었다. 불빛이 한결 밝아지면서 부드러운 곡선미를 띤 계월향의 아름다운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가끔 문밖을 내다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고달부가 김응서방어사님을 만났을까? 방어사가 적정을 적은 글썽지를 분명히 받았는지? 그런데 그는 왜 아직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고달부는 이웃에 사는 사나이로서 계월향이 알아낸 적정을 평안도 방어사 김응서에게 전하러갔다.

《방어사님이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행동할까?》 보고싶었다. 그리움에 마음이 찢어졌해졌다. 김응서를 알게 된것이 언제였던가? ...

늑귀가 약간 치겨져 올라간 김응서는 20대의 젊은 무관으로서 평양성사람들의 인망을 모으고있었다.

계월향은 량반들을 대하기 역겨워했었다. 량반치고 방탕하지 않고 무꿀충이 아닌 사내가 없었다. 저들은 하늘이 낸 존재요 백성은 땅이 빚은 물건이라고 반상을 가

르지만 원래 점잖게 앉아있는 부처님의 밑구멍이 더 지저분한 법이다.

계월향은 김응서도 같은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곁을 주지 않았다.

이때 놀랄만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후세에 유명하게 알려진 평양의 열장사 패거리의 첫 발단은 쇠주먹으로 소문난 주복이, 돌중놈이라는 말을 듣는 법근이, 차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백이로부터였다. 의협심이 강한 그들이 소문나게 되자 여러 사람들이 더 끼여들었는데 나중에는 립기등이 같은 장사군은 물론이고 김응서와 같은 량반까지 끼여들었다.

우스운것은 첫 발단은 천민들이 떼였는데 나중에는 량반까지 모여든것이다.

김응서가 이 패거리에 들어갈 때이다.

그들이 모란봉에서 술판을 벌렸는데 여기에 김응서가 찾아왔다. 자기도 한자리 달라는것이다. 그러나 주복이네들은 김응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는 배심있게 해볼래면 해보자는 자세로 그의 행동을 주시하였다.

그런데 그 행동은 놀랄만 했다.

김응서는 인차 술과 고기를 달구지에 싣고 다시 나타났다.

장사들은 꺾꺾 웃고나서 김응서를 자기네 패거리에 받아들였다.

량반이 상놈들의 패거리에 들어가려고 한것도 놀랄만하고 거기서 쫓겨난것도 기괴한 일이었으나 권력의 힘으로 보복하지 않고 술과 고기를 대접하여 그속에 끼인것은 경이적인 일이다.

역시 김응서는 좁쌀량반은 아니요, 속이 트인 대범한 량반임이 틀림없었다.

어느해 단풍놀이때 한 술자리에서 술을
부어주며 세월향은 호기심에 물었다.

《그때 부끄럽지 아니하였나이까?》

김응서는 빙그레 웃었다.

《백성들의 외면을 당하는것은 정말 부
끄러운 일일세.》 그들은 그때부터 가까운
사이로 되였었다.

세월향이 그 생각을 하며 등잔만을 하염
없이 들여다보는데 밖에서 인기척소리가
들리였다.

누군가 창을 두드렸다.

《똑똑똑.》

고달부의 신호가 틀림없었다. 문을 열자
흰 두건을 쓴 고달부가 땀투성이가 되어
뛰어들었다.

《무슨 일로 이리로 황겁히...》

(방어사님이 이리로 오셨소.》

《네에?》

세월향의 눈이 커졌다.

문가에 김응서의 모습이 나타났다. 금시
천정이 낮아지고 문이 좁아보였다.

《월향이 잘 있었나?》

놀라움에 쳐다보던 세월향은 아래도리를
후려맞은것처럼 비칠거렸다. 눈물이 솟구
쳤다. 반가움에 울고 고마움에 울었다.
왜장 소서비의 시중을 든다고 누구나 경
멸하는 자기를 끝까지 믿어 여기까지 온
그 마음이 고마왔다.

《방어사님이 어찌 이런 위험한곳에 오
셨나이까?》

그는 온몸을 떨기 시작하였다. 단지 놀
라움만은 아니였다. 김응서의 생사가 근
심된것이다.

사실 요즘 적들의 경계가 심했다.

행패질도 더 심해지고 찍하면 사람들을
죽이고 아마 평양성싸움을 앞두고 놈들의
발악이 절정에 오른것 같았다.

이럴 때 적들속에까지 소문난 김응서가
평양성 한복판에 나타났다면 놈들은 가만
있지 않을것이였다

세월향은 김응서방어사님이 단신으로 여
기에 나타난것만으로도 놀라왔다.

김응서는 입을 꼭 다물고 서있다. 얼굴
이 엄엄하게 굳어지고 불편에 경련이 일
었다.

《소서비의 목을 가지려왔네.》

세월향이 흠칫 했다.

《혼자서...》

《그것이 더 나을것 같아서... 나는 월향
이 도와주리라고 믿네. 비록 기생일지라
도 이 나라 백성이 분명한즉 백성을 위한
일에 두려움이 없으리라 믿네.》

《소녀의 목숨이야 열번 바친들 아까움
이 있으오리까. 하오나 방어사님은 나라
의 동량지재이거늘 어찌 허술히 목숨을
내치려 하시나이까. 소서비가 련광정열에
있는 청허관에 류속하운데 파수도 엄밀히
설뿐아니라 소서비의 목을 벤다하더라도
주변의 경계가 심하여 빠져나갈수 없사오
리니 중한 몸을 돌보아 무사히 돌아가시
이다.》 김응서의 눈에서 불씨가 튀어났다

《소서비놈이 어제 성밖에 나와 백성들
을 도륙하였네. 나는 이곳에 올 때 생사
를 결단하였으니 이 나라 백성을 살륙하
는 왜적의 무리를 없애고 나라일에 힘 쓰
다가 목숨을 바친들 무슨 한이 있겠소.
그런 말을 말제.》

세월향의 두눈에 눈물이 그렇그렇게졌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다

《방어사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제 모든
것을 다하오리이다.》

새벽녘 세월향은 김응서와 함께 청허관
을 향하여 떠났다.

청허관앞에서 두놈의 왜놈파수가 창대를
꼬나들었다

《누군가?》세월향이 방긋 웃으며 나서자
파수놈은 그를 알아본듯 헤벌쭙해졌다.

《뒤사람은?》

《제오라비오이다.》

《오라비?...》

그러는 사이 다가온 김응서가 등뒤에 감
추었던 장검을 뽑아들었다. 파수놈들이
놀라 반항하기도 전에 김응서의 장검이
두놈을 단번에 베어버렸다.

계월향은 소서비가 자고있는 방을 가리켰다. 김응서는 마음이 급하여 문을 떠밀치며 뛰어들었다. 문이 나가떨어졌다.

《웬놈이냐?》

소서비가 벌떡 일어나며 장검을 뽑아들었다. 김응서는 쩡쩡 울리게 소리쳤다.

《조선장수 김응서가 왜장 소서비의 목을 가지러왔다.》

소서비는 아연하여 잠시 멍하니 섰다. 이곳에 김응서가 뛰어들줄은 몰랐다. 정신을 차려 김응서 있는쪽으로 고향을 지르며 뛰어나왔다.

김응서는 날래게 몸을 피하며 장검을 휘둘렀다. 정신을 차리기도전에 소서비의 목이 푹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갔다.

김응서는 바빠 달려가 소서비의 머리를 집어들었다.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계월향이 황겁히 뛰어들었다.

《왜병이 청허관을 포위 하나이다. 어서 빠져나가시오이다.》

김응서는 주춤했다. 놀랐다. 지체할수가 없었다. 그는 계월향을 한팔에 끼고 뛰어나가며 장검을 휘둘렀다. 칼날이 번뜩하며 두어놈이 쓰러지자 길이 생겼다. 그 틈을 타서 김응서는 모란봉쪽으로 내뛰었다. 계월향을 다시 추스려안으며 소리쳤다.

《죽어도 손을 놓지 말아!》

모란봉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왜병들이 조여들었다. 창을 쏘나들고 고군분투하며 저쪽에서 고달부가 달려왔다. 두사람의 기세에 왜병들은 둔덕밑에 물러섰다. 고달부가 김응서를 바라보니 한손에 소서비의 목을 들었는데 팔에는 사람을 끼고있다. <왜장의 목을 베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오이까?》

《계월향이다. 오늘 적장을 죽이고 대공을 세우기는 다 이 사람의 덕이라 차마 승냥이굴에 두지 못하고 안고왔다.》

고달부는 김응서의 팔을 잡았다

《월향을 데리고는 여기서 빠질수 없으니 혼자 빠지시오이다. 뒤는 내가 막겠소이다.》

김응서는 그를 떠밀치며 노성을 질렀다.

《나를 살리고 나라에 대공을 세운 사람을 버리고 가라고 하느냐! 네놈을 죽이기전에 입을 닥쳐라!》

계월향은 이 말을 다 들었다. 자기가 이 시각 짐이 된다는것을 깨달았다. 자기로 하여 김응서방어사님이 위험에 빠진다는것을 생각할 때 그대로 있을수 없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뜨끈한것이 입안에 고였다. 김응서를 떠밀치며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월향의 눈에 샘이 솟구쳤다

《소녀가 방어사님의 거두심을 입어 오로지 방어사님을 따를가 하였더니 사세가 급하온지라 이제 더러운 왜놈에 잡혀죽으니 방어사님의 칼에 죽음이 소원이로소이다.》

김응서는 펄펄 뛰었다.

《무슨 소릴 하는가? 자네를 버리고 간다면 내 대공을 세운들 무슨 체면에 푸른 하늘을 보겠는가! 죽더라도 안고 나갈테니 다른 소리를 말라구!》

계월향은 울음을 씹어삼켰다. 그렇다고 그를 어찌 죽음터에 몰아넣을수 있단말인가! 아! 나도 힘이 있어 왜적을 치고 방어사님을 구원할수 있다면! 천지신명도 야속하다. 만물을 창조하고 음양을 가르쳐 남녀를 만드실제 힘도 고루 나누어줄것이지 어찌 남자에게 더 주셨는가!

그는 품속에서 장도칼을 꺼내들었다. 어느때인가는 왜장을 찌르고저 했던 장도칼, 한시도 품에서 떼여낸적이 없는 장도칼.

《방어사님! 나라 위한 몸 귀중히 하소서.》 계월향은 장도로 힘껏 제목을 찔렀다.

김응서가 와플 놀라며 그를 부둥켜안으니 이미 숨이 없었다. 목에서 피가 팔팔 흘러나왔다.

《월향!-》

가슴이 찢어지는듯 했다. 이런 가슴아픈 죽음도 보아야 하는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승전고를 울리지 못한다지만 이런 처절한 피도 보아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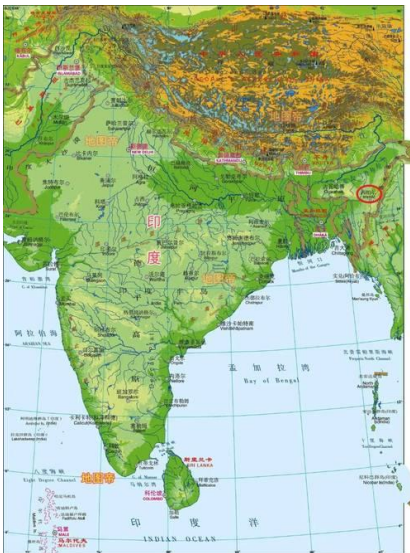
김응서는 하늘을 쳐다보며 울부짖었다.

《사세부득하여 그대를 구하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대의 장한 뜻은 하늘이 알고 만백성이 알리로다!》 김응서는 한소리 크게 지르며 다가드는 왜병들 속에 뛰어들었다. 고달부도 피눈물을 썩으며 창을 꼬나들고 내질렀다. 뛰어난 무예를 가진 김응서는 적진을 꿰치르고 끝내 빠져나왔다.

적장 소서비의 목이 떨어진것으로 하여 왜적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드디어 조선군사들의 공격에 못이겨 적들은 평양성에서 쫓겨났다.

평양사람들은 계월향의 애국심을 높이 찬양하여 《의렬사》라는 사당을 짓고 비를 세워 그를 잊지 않게 하였으며 그가 살던곳을 《월향동》이라 불러 오늘까지 전하고있다.

인 디 아



인디아공화국은 아세아의 중남부에 자리잡고있다. 세면이 바다이고 인디아반도의 3분의 2의 면적을 차지하고있다.

동북부는 중국, 네팔, 부탄과 국경을 접하고 동부는 방글라데슈, 만마, 서북부는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있다.

면적은 319 만여 km² 이고 인구는 14 억 6 천만명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제1위이다. 수도 뉴델리의 인구는 3500 만명이다.

인구밀도가 높아 교통이 혼잡하다.

전국을 27 개주와 5 개중앙직할구와 국가수도구로 나눈다. <인디아>라는 이름은 고대그리스인들이 고대이란어에 근거

하여 이 나라를 <힌두>(Hindu)라고 부른데서 유래되었다.

지세는 대체로 평원과 고원, 산지로 이루어졌는데 네팔과의 국경연선에 위치한 칸첸중가 (Kanchenjunga) 산의 해발높이는 8586 m로서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중부평원지구는 인두쓰강-강가강 대평원으로서 전국면적의 43%를 차지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평원의 하나이다.

남부고원지구는 해발높이가 1000~1500m 의 데칸고원이 위주를 이루고있다. 기후는 전형적인 열대계절풍기후이다.

북부의 히말라야산맥이 찬 기류를 막고 인디아양의 열풍으로 년평균기온은 24~27℃정도이다. 한해강수량은 서해안, 서부벵갈지대에서 2,700 mm, 중부간지스벌지대에서 1000-2000 mm. 아쌈주 체라뿐주의 년강수량은 1 만mm이상으로서 세계적으로 강수량이 제일 많은 지구로 알려져있다.

산림총면적은 국토의 24%를 차지한다.

강하천이 비교적 발달되었는데 주요강은 강가강과 브라마뿌트라강 등이다.

일찌기 유럽대인종과 아시아대인종, 아프리카-오세안주대인종에 속하는 여러 주민들과 아리아족, 튀르크족, 몽골족 등 여러 민족, 종족들이 이곳에 들어와 살면서 많은 민족, 종족이 형성되게 되어 인디아의 민족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인디아는 다민족국가로서 힌두스탄족은 전국인구의 46%를 차지하며 비하르족, 델루구족, 벵갈족, 마라티족, 따밀족, 구자라트족 등 인구가 1000 만이 넘는 10 여개 민족을 비롯한 100 여개 민족이 있다.

공용어는 힌두어, 영어이며 여러 주들에는 쓰는 19 가지의 언어가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힌두교를 믿으며 일부가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불교 등을 믿는다. 힌두교는 소를 신성한 동물로 보고 그것을 잡는것을 금지한다.

인디아 국적을 가진 주민전체를 인디아인이라고 한다.

인디아는 오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있다.

기원전 2000 년부터 강가강류역에 고대도시들이 출현하고 그 문화는 남부인디아로 퍼져갔다. 기원전 322 년에 통일적인 노예제국가인 마우리아왕조가 출현하였다.

8 세기중엽 아랍족의 침입을 받았으며 1206 년에 델리왕조가 출현하고 1526 년 무갈제국이 출현하였다.

1600 년 영국은 프랑스, 뽀르투갈, 네데를란드 등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9 세기중엽에 인디아의 전 령토를 강점하고 장기간의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힌두교와 이슬람교도간의 종교적반목을 조장시켜 파키스탄과 인디아 두개 <자치령>으로 갈라 독립을 선포하게 하였다.

인디아는 <영련방>안의 <자치령>으로서 독립하고 1950 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량원제이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나 실권은 없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철, 망강, 동, 돌비늘, 보크사이트 등이다.

철광석추정매장량은 약 134 억톤, 망간광추정매장량은 1 억 8 천만톤으로서 세계 제3 위이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한다.

부침땅은 1 억 6 천 530 만헥타르이며 그 가운데서 4 분의 3 이 알곡작물재배지이다.

세계최대 량식생산국에 속하며 해마다 많은 입쌀을 수출하고있다.

공업은 방직, 식품가공, 화학공업, 제약, 제철업이 있다. 목화와 황마를 많이 생산하고있다. 소와 물소마리수에서는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나 종교적관습으로 하여 잡지않으므로 경제적으로 큰 의의가 없다.

공업에서는 면방직공업과 황마가공공업이 발전되고있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의 전체 길이는 12.5 만 km 로 세계전렬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로화되고 락후하다. 인디아는 뿔력불가담운동의 하나이다.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사회적문제도 많다.

인디아사회의 빈부차이가 심하고 종씨제도가 첨예한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힌두교도는 소고기를 먹지 않고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갈등은 력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되고있다.

방언이 많아 언어소통이 불편하여 영어로 교류한다.

인디아에는 사람들을 4 개의 신분등급으로 가르는 카스트제도와 천민신분을 규정하여 사회적으로 모순이 많다.

신분등급사이의 한계는 매우 엄격하여 다른 신분등급사이에는 결혼을 할수 없고 취업, 교류에도 영향이 심각하여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비록 법적으로는 폐지하였으나 현재도 엄연히 존재하고있다.

오랜 종교적인 낡은 관념으로 녀성들의 지위가 낮다.

인디아의 모든 사람들은 민족체육인 지상호케이(曲棍球)를 즐겨한다.

1973 년 12 월 10 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제 2 차 세계 대전의 전환

히틀러도당은 소련을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하면서 침략계획인 <바르바로스안>을 작성하였다. 히틀러는 도이칠란드에서 중세시기에 유럽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해 나섰던 바르바로스(프리드리히 1세) 황제가 실현하지 못한 도이칠란드의 침략야망을 자기가 소련을 침략함으로써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반소침략계획을 <바르바로스안>이라고 하였다.

소련에 대한 침략전쟁준비를 끝낸 히틀러도당은 1941년 6월 22일 170개사단의 병력을 동원하여 불의에 배신적침공을 감행하였다.

히틀러는 전쟁시기 침략방향을 3개로 정하고 <북방군>은 발트해연안과 레닌그라드(오늘의 싌크뜨 빼쩌르부르그)를, <중앙군>은 모스크바를, <남방군>은 끼예브를 공격하게 하였다. 전쟁이 시작되어 첫 전투는 소련이 서부국경에 있는 군사적요충지인 브레스트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새벽 적정을 처음 발견한 직일병이 비상신호를 울렸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브레스트요새의 방위자들은 사면으로 포위된속에서도 한달이상이나 결사전을 벌리면서 마지막 한사람까지 영웅적으로 싸웠다.

1. 레닌그라드방위전투

레닌그라드방위전투는 1941년 8월부터 1944년 1월까지 900여일간 진행되었다. 8월 8일 레닌그라드에 대한 총 공격을 개시한 도이칠란드 <북방군사령부>는 붉은군대와 레닌그라드인민들의 완강한 항전에 의하여 공격이 좌절되게 되자 도시에 있는 군대와 시민들을 질식시키기 위하여 레닌그라드시에 대한 봉쇄에 들어 갔다. 그러나 히틀러도이칠란드군대는 레닌그라드봉쇄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심한 추위와 굶주림, 폭탄이 비발처럼 쏟아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레닌그라드의 방위자들은 빵을 구워냈고 땅크를 만들어 냈으며 생산을 추켜 올리였다. 온 세계의 부르조아지들이 레닌그라드가 함락될것이라고 떠들던 1943년에 이 도시의 근로자들은 그 전해에 비해 더 높은 생산능률을 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의 불굴의 방위전투에 의하여 시민들을 질식시키려던 기도는 파탄되고 레닌그라드에 대한 도이칠란드군의 공격은 실패하였다.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은 심한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 내면서 900일동안의 봉쇄속에서도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끝끝내 도시를 지켜 냈다.

2. 모스크바공격

레닌그라드를 봉쇄한 도이칠란드침략군은 1941년 9월 오투, 꾸르스크계선에서 모스크바를 향하여 총 공격을 개시하였다. 히틀러는 어리석게도 소련의 힘을 알잡으면서 <로씨야인들은 지금 마지막숨을 쉬고 있다. 그들을 끝장내는데는 얼마간의 힘이 필요할 뿐이다.>라고 지껄이면서 겨울이 오기전에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전쟁을 끝장내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모스크바공격에 파쑈도이칠란드는 1,700대의 땅크와 950대의 비행기를 포함한 75개 사단(약 100만명)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였다.

한편 소련군은 모스크바를 방위하기 위하여 782대의 땅크와 454대의 비행기를 가진 95개 사단(약 80만명)의 무력을 배치하였다.

모스크바시민들은 수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의용군을 조직하고 방어시설들을 구축하기 위한 결사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1941년 11월 6일과 7일 모스크바광장에서는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승리 24주년을 기념하는 보고대회와 붉은군대의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수도로부터 26km 밖에 적들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붉은군대의 열병식은 전체 소련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 주었다.

열병식에 참가한 소련군장병들은 그 길로 전선으로 나가 적들과 싸웠다.

1941년 12월 소련군대는 드디어 반공격으로 넘어 갔다. 반공격이 개시되어 불과 6시간 동안에 소련군대는 파쑈도이첼란드군 3만명을 소멸하고 40일 동안에는 30만명을 격멸하였다. 모스크바 부근에서 파쑈도이첼란드군의 괴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쑈도이첼란드의 최초의 대패배였으며 히틀러가 내놓은 <전격전> 침략계획의 총파산이었다.

3. 쓰딸링그라드 격전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전쟁을 빨리 끝내려던 파쑈도이첼란드의 망상은 깨어지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모스크바의 방어선을 뚫지 못한 히틀러는 불가강과 돈강을 연결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쓰딸링그라드(불고그라드)를 점령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소련을 곡창지대와 원유, 석탄산지로부터 떼내어 약화시키고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였다. 1942년 7월 쓰딸링그라드에 대한 도이첼란드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 공격전투에 도이첼란드는 36개의 기계화사단을 동원하였다.

소련군대와 쓰딸링그라드주민들은 한치의 땅, 한채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싸웠다. 쓰딸링그라드 트랙토르공장 노동자들은 적들의 폭격과 포격이 감행되는 속에서도 하루에 100대 이상의 탱크를 생산하여 전선에서 싸우는 군대에 보내주었다.

1942년 11월경에 소련군대는 반공격으로 넘어 갔다. 강력한 포사격이 있은 후에 소련군대는 적을 량측에서 포위하였다. 이리하여 소련군대는 포위망에 든 33만명의 도이첼란드 침략군 가운데서 9만 1,000명을 포로하고 나머지는 전멸시켰으며 5,700문의 포와 수많은 탱크와 군수물자를 로획하거나 파괴하였다.

포로된 놈들 중에는 악명 높은 소련 침략계획인 <바르바로스안>을 작성한 파울류스 놈도 있었다. 쓰딸링그라드에서 참패를 당한 파쑈도이첼란드는 1943년 여름 세계전쟁사상 가장 큰 탱크전이 진행된 꾸르스크 전투에서 다시 한번 대참패를 당하였다. 이 전투에는 1,100대 이상의 탱크와 자동포, 비행기들이 동원되었다. 단 하루 동안의 탱크전에서 도이첼란드는 350대의 탱크와 1만명 이상의 군대를 잃었다. 50여 일간의 전투에서 도이첼란드는 7개의 탱크사단을 포함하여 50개 사단의 병력이 격멸당하였다. 이 전투를 통하여 소련군대는 전쟁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 쥐고 반공격으로 넘어 가게 되었다. /선전국

국 제 공 산 당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공산주의 운동 앞에는 이 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새로운 국제적 중앙을 내오는 문제가 절박하게 제기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관련되었다.

로씨야에서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사회주의는 리상으로 부터 현실로 되었다. 때문에 국제공산주의 운동 앞에는 로씨야에 태어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를 지키고 그 성과를 세계적 판도에서 확대해 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공산당들이 창건되었으나 이 당들은 혁명운동을 옹호 지도하리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10월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그 성과를 세계적 판도로 확대해 나가려면 하루빨리 새로운 국제당을 창건하여야 하였다. 새로운 국제당 창건이 절박한 요구로 제기된 것은 또한 제2국제당 기회주의자들이 국제로동운동의 령도권을 탈취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기 때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잔당들은 국제로동운동의 령

도권을 탈취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1919년 2월 스위스의 베른에 모여 붕괴된 제2국제당을 복구하였다. 이를 <베른국제당> 또는 <황색국제당>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은 또다시 수정주의의 구렁텅이에 빠질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레닌은 제2국제당의 잔당들이 <베른국제당>을 내오고 국제로동운동의 정도권을 장악해 보려고 날뛰자 시급히 1919년 3월 모스크바에서 국제공산당창립대회를 소집하였다. 대회에는 30여개 나라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좌파들의 대표 50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국제공산당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대회는 레닌의 보고에 기초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당면한 투쟁과업이 로동계급의 정권을 세우기 위한 혁명투쟁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새로 창건된 국제공산당이 경제투쟁, 의회투쟁만 부르짖던 기회주의적제2국제당과 완전히 구별되는 혁명적인 국제당조직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대회는 국제공산당의 지도기관인 집행위원회를 선거하였으며 매개 나라에는 국제공산당지부를 하나씩 두기로 하였다. 국제공산당의 창건은 각국의 청소한 공산당들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며 각국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게 함으로써 세계적범위에서 로동계급의 정권쟁취를 위한 투쟁을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었다. 국제공산당은 창건된 초시기에 밖으로는 로동운동에서 제2국제당기회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베른에서 복구된 제2국제당(황색국제당)은 이른바 로동자와 자본가들 사이에 서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로동자, 농민의 정권인 쏘베트정권을 악랄하게 헐뜯었다.

그러나 레닌과 국제공산당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황색국제당>은 나날이 고립되어 갔으며 국제공산당의 권위와 영향력은 더욱더 높아졌다.

국제공산당은 밖으로는 제2국제당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한편 레닌이 서거한 후 국제공산당안에 나타난 좌경기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도 강화하였다. 좌경기회주의는 혁명적인 구호나 행동으로 자기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우는 기회주의를 말한다. 프로쓰끼를 두목으로 하는 좌경기회주의자들은 레닌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종파주의적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자들의 모든 배신적책동은 쓰딸린과 진실한 공산주의자들의 비타협적투쟁에 의하여 제때에 폭로분쇄되었으며 국제공산당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더욱 공고발전되었다.

국제공산당은 1930년대에 국제적으로 파시즘이 대두하고 많은 나라들이 파쇼화의 위협에 처하게 되자 반제반파쇼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에 벌써 우리 식의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심으로써 반제반파쇼통일전선운동의 위대한 선구자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1935년 7월 모스크바에서는 국제공산당 7차대회가 열렸다. 대회에서는 로동계급의 통일단결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파쇼인민전선을 결성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되었다. 국제공산당 7차대회는 국제공산당의 마지막대회였다. 그 이후에 국제반파쇼통일전선운동은 더욱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아시아 및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련이어 출현하였으며 그 당들은 자기 나라 혁명을 옹호 지도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매개 나라의 혁명력량도 강화되었다. 또한 매개 나라의 혁명임무와 실정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매개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이 독자성과 자주성을 견지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실태는 공산주의운동안에서 국제적인 중앙을 필요로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으며 국제공산당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이리하여 1943년 5월 국제공산당은 자기의 해산을 선포하였다.

/선전국

로씨야인들은 왜 중국을 《끼따이》라고 부르는가

온 세상이 중국을 가리켜 《차이나》라고 하는데 유독 로씨야인들은 중국을 가리켜 《끼따이》라고 부른다.

끼따이는 거란족 즉 몽골족을 가리키던 말이였다.

거란족은 4세기 이후에 출현하여 현재의 북부중국에 자기들의 광활한 유목정착지를 형성하였다.

10세기초에 주장 아를아보기가 거란족을 통합하고 나라를 세워 거란이라고 불렀다.

아를아보기의 아들 아를덕광이 나라이름을 《료》로 고치였으며 료나라는 1211년 칭기스한에 의해 멸망하였다.

그러나 북부중국의 광활한 지역과 그에 의지한 유목종족은 그대로 《끼따이》라고 불리웠다.

그 《끼따이》들인 칭기스한의 세력이 전 중국을 통일하고 13세기에 들어와 고비사막과 씨비리를 넘어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진출하였으며 서쪽으로는 에짚트까지, 북쪽으로는 로씨야의 노브고로드까지, 남쪽으로는 인디네시아까지 장악하였다.

칭기스한과 그 후예들은 식민지정복전쟁을 벌이는 과정에 온갖 잔인하고 악독한 방법과 수단을 다 적용하였다.

하여 로씨야사람들과 중앙아시아인들에게는 중국땅을 본거지로 하고있는 끼따이들이 공포와 전율의 대명사로 되었다.

그 부름이 지정학적부름으로 굳어져 오늘까지 전해져내려오면서 로씨야인들은 몽골이 아니 중국을 《끼따이》로 잘못 부르고있는것이다.

/선전국



단어발음에서의 말소리변화

단어를 발음할 때 형태부의 말소리구성은 말소리들이 놓이는 위치와 결합조건에 따라 일련의 말소리변화를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말소리변화라고 하면 현행의 말소리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어발음에서의 말소리들의 규칙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일정한 역사적시기에 작용하였던 말소리법칙에 의해 맞춤법상으로 고착 말소리교체현상들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므로 흔히 말소리변화로 취급하지 않는다.

단어발음에서 생기는 말소리변화들에는 크게 소리바꾸기, 소리끼우기, 소리빠지기, 소리줄이기의 네가지가 있다.

소리빠지기란 단어를 발음할 때 형태부를 이루고있는 어떤 말소리가 발음되지 않고 빠져 없어지거나 극히 약하게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소리빠지기에는 자음이 빠지는 경우와 모음이 빠지는 경우의 두가지가 있다.

자음빠지기란 단어안의 어떤 자음이 빠져서 발음되지 않는 말소리변화를 말한다.

여기에는 돌받침에서의 자음빠지기과 《ㅎ》의 빠지기 그리고 단어안의 《렬, 룰》의 초성빠지기가 있다.

돌받침에서의 자음빠지기

돌받침은 다른 자음의 앞이나 단어의 끝에 있을 때 둘중 어느 하나가 빠져서 발음되지 않는다.

돌받침중의 어느 하나만이 혀앞소리인 경우에는 그 혀앞소리가 빠져 발음되지 않는다.

○ 값 [갑] 녀 [녀] 삶 [삼] 밭다 [밥따] 밭다 [박따]

옳다 [읍따] 삶다 [삼따] 밭는다 [밤는다] 밭네 [방네]

다만 용언말줄기의 《리》과 형용사말줄기끝의 《래》은 뒤에 《ㄱ》으로 시작되는 용언토가 오면 [ㄹ]로 발음한다.

○ 붉게 [불께] 넓게 [널께] 읽기 [일끼] 밟고 [밥꼬] 읊기 [읍끼]

오늘 문화어발음에서는 용언말줄기안의 돌받침 《리》과 《래》의 발음이 울림소리인 《ㄹ》을 발음하고 울림없는소리를 발음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하고있다.

그리하여 《밟다》나 《밟다》를 [발따]로, 《밟고》를 [발꼬]로, 《넓다》를 [널따]로, 《옳다》를 [읍따]로 발음하는것이 보편적인것으로 되어가고있다.

단어 《여덱》은 언제나 [여덜]로 발음한다.

두 자음이 다 혀앞소리이면 울림없는소리가 빠지고 울림소리자음이 발음된다.

○ 똥 [돌] 앓다 [안따] 훑다 [홀따]

《ㅎ》이 종성위치에 놓이고 뒤에 모음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빠져서 발음되지 않는다.

○ 좋은 [조은] 닿아서 [다아서]

돌받침을 이루는 《ㅎ》은 모음이나 울림소리앞에서 빠져버린다.

○ 앓아 [아나] 앓네 [안네] 앓아서 [아라서] 앓는다 [알른다]

모음빠지기란 두개의 홀모음 또는 모음요소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빠져서 발음되지 않는 소리빠지기이다.

모음빠지기에는 겹모음의 모음요소빠지기과 홀모음의 빠지기가 있다.

그가운데서 규범적으로 인정하는것은 모음요소빠지기이다.

겹모음에서 《-ㅓ》의 모음요소 《ㅡ》는 자음뒤에서와 소리토막의 가운데 또는 끝에서 발음되지 않을수 있다.

○ 띄우다 [띠우다] 희망 [히망] 씌우개 [씨우개] 대의원 [대의원] 준의 [주니] 의의 [의이] 그러나 격로 《의》만은 겹모음으로 제대로 발음한다.

다만 운문의 경우에는 《에》로 발음할수 있다.

문화어발음에서는 오직 한자말의 《계, 례, 혜》에서 반모음 [j]가 빠지는 경우만을 규범적인것으로 인정한다.

○ 판계 [판계] 세계 [세계] 혜택 [혜택] 은혜 [은혜] 례절 [례절] 관례 [팔례]



장편소설

림격정

홍명희 원작

홍석중 윤색

(전호에서 이음)

평안감사 김명윤은 설달 초순부터 서울로 올라보낼 물건집들을 꾸리느라고 감영 사람들을 밤잠도 못 자게 여러날 들볶아댔다. 왕과 왕비에게 올려보내는 물건집은 그만두고라도 윤원형이같은 세도 재상들에게 보내는 물건집만 하여도 굉장하였다.

김명윤은 다 꾸려놓은 물건집들을 보고 마음이 호뭇하였으나 한쪽으로 불안한 생각도 있었다. 그 역시 청석골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때문에 물건을 서울로 올라가다가 그들에게 빼앗길수있다는것을 알고있었던것이다.

김명윤은 자기의 심복인 레방비장과 평양의 량반인 김량달에게 물건집의 호송을 책임지웠다. 김량달은 힘이 세고 무술에 능한 량반이었다.

이놈은 김명윤이가 물건집만 잘 호송하고 돌아오면 벼슬자리를 주겠다는 말에 혹하여 자신만만하게 따라나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명윤이 물건호송의 총책임을 자기에게 지우지 않고 서울량반인 레방비장에게 지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설달아흐레날 드디어 물건집의 긴 행렬이 평양성문을 나섰다. 일행은 많았다. 레방비장과 김량달은 수에 넣지 않고라도 장교 스물, 말군 열넷, 짐꾼 열셋 도합 마흔일곱이였고 말은 모두 열다섯필이었다. 떠나서 나흘만에 물건집의 행렬은 평산에 들어섰다.

평산숙소에 들어서 저녁밥을 먹고났을 때였다. 김량달이 레방비장에게 말했다.

《래일 첫새벽에 여길 떠나면 금교역말에서 점심을 먹고 송도에서 밤을 지낼수 있게 됩니다. 그게 좋으니 일찍 떠납시다.》

레방비장은 김량달의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흔들었다.

《송도에 가서 밤을 지내면 좋은줄을 누가 모르나?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청석골을 해저문 뒤에 지나가게 될테니까 안되네.》

《그까짓 청석골놈들은 백명, 이백명이 나오더라도 내가 혼자서 능히 감당할테니 녀려말구 갑시다.》

《쓸데없는 소리 말구 래일은 금교역말에 가서 밤을 지내세.》

레방비장의 말에 김량달은 속이 울컥 치밀었다. 레방비장은 자기가 서울량반이라는것과 감사의 친척이라는것을 코등에 걸고 늘 지방량반인 김량달을 깔보며 말투나 행동도 자기 부하를 대하듯 마구 대하는것이였다. 김량달은 꼭 참았다.

《청석골놈들과 한번 싸워서 모조리 붙잡으면 찜떡구 알먹기가 아닙니까? 내 생각엔 래일 꼭 송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돼지 잡으려다가 집돼지까지 잃는다는 말 못 들었나? 래일은 금교역말까지 갈테니까 탄소리 말게.》

김량달은 더 말을 못하고 입맛을 다셨다.

바로 이때 방문밖에서는 웬 사람 하나가 그들의 말을 엿듣고있었다. 장교 하나가



마당에 나왔다가 그것을 보고 살며시 그의 등뒤로 다가 갔다. 었든던 사람은 인기척을 느끼고 홑 돌아서더니 나는 새처럼 바깥 큰길로 내뺄버렸다. 장교는 급히 뒤를 따랐다. 큰길에 나와보니 그 사람은 간곳 없이 사라지고 술취한 사람 두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고 있었다

《여보, 지금 여기서 사람 하나 도망치는걸 못 봤소?》

《어떤 사람이 어디서 나갔단 말지요?》

《못 봤거든 그만두우.》

《그만두구 말구. 우린 갈테요.》

술취한 사람들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장교는 주변을 살살이 뒤졌으나 종내 었든던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 장교한테서 보고를 받은 레방비장은 일체 장교들을 단속하여 잠을 자지 않고 집을 지키도록 하였다. 이튿날 일행은 평산을 떠났다. 오조촌이라는 곳에서 점심을 먹고나왔을 때였다.

오조촌사람들이 몰려나와 물건짐의 행렬을 구경하며 이렇게 요란한 물건짐들은 처음 본다고 저마끔 말하였다. 이 말에 젊은 짐꾼 하나가 자랑하듯 대답했다.

《그까짓 걸만 보구 굉장하다우? 속에는 천하보물이 다 들어있다우.》

그의 대답을 들은 오조촌의 젊은 사람 하나가 비양스럽게 웃어댔다.

《그러니 평안도사람들은 다 죽겠구려. 저렇게 등골들을 빼먹히우고 무슨 수루 살겠소?》

마침 레방비장이 밖에 나왔다가 이 말을 듣고 대노하여 그 사람을 잡아다가 매를 안기게 했다. 길가던 사람 여섯이 몰려와서 매맞는것을 구경하는데 그들의 얼굴표정이 남달리 험악해지는것을 보고 장교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물건짐의 행렬이 다시 떠나기 전에 레방비장은 장교 두사람을 금교역말로 숙소를 잡으라고 먼저 떠나보냈다. 그래서 장교

두사람은 매맞는것을 구경하던 여섯사람과 동행이 되어 금교역말에 들어섰다. 그들 여섯사람은 자기들을 장사군이라고 하면서 금교역말에 가면 자기들이 잘 아는 집이 있으니 그 집에 숙소를 정하라고 말하였다.

장교들은 장사군들의 말을 고맙게 받아들였다. 그들이 숙소를 정하고 났을 때 물건짐의 행렬이 금교역말로 들어섰다.

레방비장과 김량달은 숙소의 안방에 들고 장교들과 짐꾼, 말꾼들은 숙소를 잡는 일을 도와준 장사군들과 함께 바깥방 셋에 나누어 들었다. 그리고 말들은 따로따로 마바리집에 가져다매고 물건짐은 모두 안방과 바깥방에 들여쌓았다

밤이 깊었다. 레방비장은 깊이 잠이 들고 김량달만 심심해서 앉아있는데 바깥방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김량달이 뛰여가보니 바깥방에서는 한창 술판이 벌어지고있었다. 김량달은 자기도 술을 마시고싶었지만 체면을 생각해서 장교들을 꾸짖었다.

《래일 새벽에 일찍 떠날텐데 자지들 않고 술들을 치먹는단 말이나? 술판을 그만 치워라.》

김량달은 돌아갔으나 술판의 흥은 깨어졌다. 장교들에게 술을 한턱 내던 장사군들은 술판을 걷어치우면서 굿구경을 가자고 장교들을 꼬드쳤다.

《금교역말 어물전주인이 굿을 한답니다. 굿구경을 안 가실라우?》

《우리 가서 무당들의 얼굴이나 보구 읍세다. 어서들 일어나시우.》

《자, 갑시다. 잠깐 가서 구경하구 읍시다.》 장사군들이 꼬드기는 바람에 장교들과 짐꾼, 말꾼들이 우-하고 따라나섰다. 가지 않고 남은 사람은 늙은 장사군 하나뿐이었다. 김량달은 바깥방에서 돌아와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다. 잠이 들가말가 하는데 바깥방에서 다시 사람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김량달은 성이 나서 뛰어나가 바깥방의 방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방안에는 장교들이 하나도 없고 늙은 장사군 하나가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김량달은 늙은 장사군에게 물었다.

《장교들은 다 어디로 갔나? 분명 판테루 술먹으러 갔겠지?》

《아니올시다. 굿구경을 갔소이다.》

김량달은 그 말에 슬그머니 자기도 굿구경을 가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놈들이 밤늦도록 자지 않구 굿구경을 다니면 래일 길을 어떻게 갈라노? 내가 가서 몰아와야겠군.》

그 말을 들은 장사군은 빙그레 웃더니 집주인을 찾아서 김량달에게 굿하는 집을 가리켜주고 오라고 부탁하였다. 김량달이 집주인을 따라 울박으로 나가자마자 늙은 장사군은 쏜살같이 뒤집으로 뛰어가 방문을 열었다.

《다들 여기 있나?》

캄캄한 방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여기 있습니다.》

늙은 장사군은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놈들이 굿터로 가진 갔지만 곧 돌아올것 같은데 어떻게 할가?》

《우리두 지금 그럴것 같아서 의논중입니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좋은 수가 무슨 수야?》

이윽고 방안에서는 목소리가 낮아지고 쭈군거리는 소리만이 새어나왔다. 조금있다가 늙은 장사군은 소리없이 그 방에서 나와 숙소로 돌아왔다.

레방비장은 잠에 푹아떨어져서 김량달이 굿터로 간것도 모르고있었다. 갑자기 찬바람이 얼굴에 확 끼쳐서 잠을 깨고 본즉 방안에 사람이 들어섰는데 방문이 활짝 열려있었다. 레방비장은 들어선 사람이 김량달인줄로만 알았다.

《문은 왜 열어놔어?》 그는 들어선 사람을 나무라다가 다시 쳐다보고서야 낮선

사람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잠이 천리만리로 달아났다. 낮선 사람은 싱글싱글 웃으며 그를 내려다보고 서있었다.

《넌 웬놈이냐?》

레방비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호령했다. 그러자 낮선 사람은 능글거리며 대답했다.

《량반이 랍시구 아니쎄게 호령을 하지말어. 지금 우리 대장이 할 말씀이 있대구 잠깐 오라시니 가세.》

《대장이 누군데 나를 부른단 말이냐?》

《가보면 알게 될테니 어서 일어나.》

《가만있어. 바지끈 좀 매구.》

레방비장은 바지끈을 매는척 하다가 슬며시 자리옆에 놓아두었던 칼을 집어들고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다.

《이놈아!》

그러나 그 사람은 미리 기다렸던것같이 슬쩍 대들어서 그의 칼친 손을 잡아 칼을 빼어버리고 품속에서 긴 수건을 꺼내어 아갈잡이를 시켰다. 레방비장이 아갈잡이와 뒤결박을 안 당하려고 발악하였으나 그 사람은 마치 허수아비를 다루듯 하였다. 그 사람은 레방비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않자 멍살을 잡아 일으켜세우고 닝큼 들어서 밖으로 내놓았다

《어서 와서 이놈을 끌구 가자.》

그 사람의 명령 한마디에 너털사람이 욱하고 몰려와서 레방비장을 떠메고 큰길로 나갔다.

이때 굿터에 갔다가 김량달에게 쫓겨오던 장교들이 와- 하고 뛰여왔다.

《이놈들, 거기 섰거라.》

앞장선 장교가 고향을 지르며 달려들자 레방비장을 붙들어내던 사람이 우뚝 섰다.

《이놈아, 소리지르지 말아. 시끄럽다.》

그리고는 달려드는 장교를 한손으로 떠박질렀다.

《아이쿠!》 장교는 허깨비처럼 길바닥에 나자빠졌다.

《이놈들, 모조리 동맹이를 쳐줄테니 이리들 오너라.》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집에 질린 장교들과 집군, 말군들은 모두다 슬슬 그 사람앞에서 물러났다.

늙은 장사군이 사람들의 뒤에 서있다가 대담하게 그 사람의 앞으로 나섰다. 그는 앞에 나서서 묶이운 레방비장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랑반님을 무슨 일루 붙들어가우?》

《상관없는 사람은 저리 가오.》

떠밀치지 마우, 늙은 사람 자빠지겠소.》

《그러기에 잔소리 말구 저리 비키우.》

순간 늙은 장사군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부르짖었다.

《아니, 당신이 정방산 염대장패의 젊은 두령이 아니시우?》

《나를 언제 봤다구 정방산이니 염방산이니 하구 떠들어?》

《내가 년전에 황주갔다 오다가 당신한테 혼난 일이 있는데 아무리 늙었기루서니 당신의 얼굴을 몰라보리까?》 정방산의 젊은 두령이란 사람은 눈살을 찌프리더니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이 늙은이를 두고 가면 우리의 종적을 가르쳐주기 쉽다. 시끄럽지만 붙들어가자.》

결국 늙은 장사군은 레방비장과 함께 붙잡혀가게 되었다. 늙은 장사군은 그들에게 끌려가며 정방산의 정자나 염대장패의 염자고 입밖에 내지 않을테니 놓아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으나 젊은 두령은 대답도 하지 않았다. 레방비장은 늙은 장사군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늙은이의 말을 들어보면 정방산에 있는 화적들인 모양인데 어쩌서 나를 잡아갈까? 나를 잡아다놓구 물건짐을 가져다 바치라구 할 작정인가?) 레방비장은 속으로 생각하니 무섭기도 했고 한켠으로는 출기도 하여 벌벌 떨며 끌려갔다.

한편 김량달은 곱하는 집에 가서 장교들과 집군, 말군들을 쫓아버리고나서 자기는 그 집에 들어앉아 굶구경을 하기 시작했다.

굿집의 주인은 김량달같은 랑반님이 자기 집에 굶구경을 오셨다고 뒤설레를 떨며 술과 고기와 떡을 한상 잘 차려주었다.

술과 고기라면 오금을 못쓰는 김량달이 한창 부어라 마셔라 하고있을때 장교 하나가 혈레벌떡 뛰어와서 레방비장이 정체를 사람들에게 붙들려간 사연을 전했다. 김량달이 깜짝 놀라서 숙소로 뛰어와보니 레방비장은 잡혀가서 없고 물건짐은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다.

《물건짐을 잃지 않은것이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레방비장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냐? 그놈들이 어디루 끌구 갔는지 종적을 알아야 쫓아가보지? 무턱대구 찾아나설수야 있나?》

김량달은 물건짐이 그대로 있는것을 보고 안도의 숨을 쉬며 장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실상 그는 물건이 그대로 있는것만큼 없어진 레방비장을 찾으려 나설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었다.

김량달이 한창 장교들과 의논을 하고있을때 장사군 하나가 들어와서 그에게 말했다.

《화적들에게 붙들려가신 랑반님을 찾으려 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뒤집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화적들이 평양가는 길쪽으로 가더랍니다. 소인들두 같이 가던 로인을 찾으려 갈테니까 가신다면 모시구 가겠습니다.》

김량달은 속으로 갈 생각이 없었으나 장사군이 화적의 종적까지 알고 와서 말하는데 안 갈수가 없었다.

《그놈들이 간 방향을 알면 뒤쫓아가서 붙잡혀간 사람들을 뺏아와야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장교 열다섯을 골라 물건짐을 지키게 하고 남은 장교 다섯과 장사군 다섯을 거느리고 낮에 왔던 큰길로 나왔다. 그들이 오리가랴 왔을 때





여러 사람이 몰려가는 그림자가 멀리 앞에서 보였다.

《옳다. 저기 간다.》장사군 하나가 소리쳤다. 김량달은 곧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서서 장달음을 놓았다. 장교들과 장사군들이 헐떡거리며 그뒤를 따랐다.

《이놈들. 제 섯거라!》김량달이 달려가며 고함을 지르자 앞에 몰려가던 그림자가 흩어지며 도망을 가는데 땅에 주저앉은 사람 하나만 떨어져있었다. 김량달이 뛰여가서 주저앉은 사람을 들여다보니 바로 그가 레방비장이었다. 그는 레방비장의 아갈잡이와 뒤결박을 풀어준 다음 도망간 화적들을 쫓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혼이 빠진 레방비장은 그를 가지 못하게 말렸다. 이때 장사군들이 레방비장에게 물었다.

《함께 잡아가던 늑은이는 화적들이 어째서 끌구 갔습니까?》

《그놈들의 말이 늑은 사람을 내버리구 가면 종적이 탄로나겠다구 하더니 그래서 끌구 달아난게지.》그 말을 들은 장사군들은 화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늑은이를 구해내겠다고 말하며 어둡속으로 사라졌다. 김량달은 장교들과 함께 레방비장을 부축하고 금교역말로 돌아왔다. 숙소에 다 왔을 때 방문들이 벌컥벌컥 열리며 집을 지키던 장교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아이구, 나리. 이제 오십니까?》

《어째 이리 더디셨습니까?》

《나리께서 레방나리를 찾으러 가신 뒤에 얼마 안있다가 화적패가 몰려와서 물건짐을 몽땅 들어갔습니다.》

이 말에 김량달은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굴어졌다. 다음순간 그는 레방비장을 밀어제끼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물건짐이 놓였던 곳에는 짚검불만 여기저기 흩어져있을뿐이었다.

김량달은 다시 달려나와 화김에 장교들을 후려갈겼다.

《이놈들아, 물건짐들이 다 어디루 갔느냐? 그래 네놈들은 화적들이 다 가져가도록 보구만 있었단 말이나?》

《화적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는 꼼짝을 못하구 결박을 당했었습니다. 나중엔 이 집 주인의 말을 들으니 그놈들이 오륙십명도 넘더랍니다. 화적의 두목이 쇠몽둥이를 들구 문앞에 지키구 서서 방해하는 놈이 있으면 쳐죽이겠다구 으르는 바람에 근처집 사람들두 무서워서 짹소리 못하구 집안에 숨어있었습니다. 화적의 두목두 한둘이 아니래요. 안에 들어왔던 두목은 큰칼을 쥐였구 안팎으로 나들던 두목은 긴 창을 집었는데 소인들을 보구 량반의 개질을 하는 놈들이라구 툽툽히 호령을 해서 꼭 죽는줄만 알았습니다.》

장교들의 말을 들은 김량달은 얼빠진 사람처럼 레방비장을 쳐다보았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레방비장은 김량달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물건짐은 자네의 굶구경바람에 없어진 줄이나 알제.》

《잃어버린 물건짐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구 비렁뱅이자루 찢기요?》

《물건짐은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놓겠지.》

《나한테 뒤집어씌우면 다요?》

김량달은 레방비장에게 눈을 부라렸다. 그러자 레방비장은 당장 호령을 했다.

《내제다 눈을 부릅뜨면 어쩔테냐?》

《뉘제다 호령질이야?》

《네제다 호령이다.》

《너라니 누굴 보고 하는 소리야?》

《네가 시골에서 굴러먹든 놈이지 뭐야?》

《아니꼽게 서울량반재세야?》

《되지 못한 시골놈이 뉘앞에서 으르딱딱거리는데냐?》

김량달은 이 소리에 주먹을 부르쥐며 벌떡 일어섰다.



《서울량반의 대가리는 내 주먹에 안 바사지는줄 아느냐?》

레방비장은 눈결에 방바닥에서 칼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오냐, 주먹을 내밀어라. 시골량반놈의 팔모가지가 어떻게 칼에 끊어지나 구경 좀 하자.》

서울량반과 시골량반의 개싸움이 한창 위험한 고비에 이르렀을 때 장교들이 달려들어서 겨우 뜯어말렸다.

그들은 할수없이 다음날 짐없는 빈 말들을 끌고 평양으로 되돌아갔다.

감사 김명윤은 물건짐을 잃고 돌아온 레방비장과 김량달을 죽도록 때려서 옥에 가두어넣고 임금과 세도재상 윤원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임금과 윤원형은 즉시 황해감사에게 화적의 소굴을 소탕하고 물건 짐을 찾으라고 명령하였다

늙은 장사군이 레방비장앞에서 정방산의 염대장패라고 말하였기때문에 황해감사는 레방비장의 말을 듣고 군사들을 시켜 정방산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정방산에는 화적의 그림자도 없었다. 군사들은 노루 두마리를 잡아가지고 내려왔을뿐이었다.

임금은 다시 황해감사에게는 윤달산을 소탕하라고 명령하고 송도류수에게는 청석골을 소탕하라고 명령하였다.

황해감사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윤달산을 포위하였다.

이때 윤달산에는 박련중이라는 사람이 대장이 되어 근 오륙십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판군과 싸우고있었다.

박련중은 황해도의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것을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 포위되기 전에 부하들과 함께 윤달산에서 피해버렸다. 결국 황해도의 군사들은 빈 산을 뒤지다가 물러가고말았다

송도류수는 청석골을 소탕하라는 임금의 지시를 받았으나 겁이 나서 우물쭈물하다

가 청석골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짓보고를 서울에 올려보냈다.

황해감사와 송도류수의 보고를 받은 임금은 김명윤이 잃어버린 물건의 품종을 적어서 각 고을에 돌리게 하고 이런 물건을 감추고있거나 가지고있는 사람을 고발하면 큰 상을 주겠다고 알렸다.

청석골사람들은 김명윤이 서울에 올려보내는 물건짐을 송두리채 빼앗아놓고 크게 세뭇으로 나누었다.

한몫은 근처마을에서 당장 굶어죽게 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주고 한몫은 군량을 마련하는데, 남은 한몫은 군사들로부터 두령들에 이르기까지 등차있게 갈라 가졌다.

빼앗은 물건들을 나눌 때 박유복이 야광주라고 부르는 보석을 집어다가 들여다보며 서림에게 물었다.

《지금 이것을 판다면 상목 몇백동은 받을수 있겠소.》

《살 사람이 있으면야 몇백동만 받겠나요? 그것을 의주부윤이 중국에서 사오는데 은으루 몇백냥을 주었답디다. 아마 그 값을 마련하느라구 의주고을의 백성들이 갈비뼈가 휘었을겁니다.》

서림의 말을 듣고있던 곽오주가 여러 두령들에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소. 요전번 걱정형님에게서 말을 들으니 요즘 양주고을에 있는 백정촌사람들의 살림이 여간 어렵지 않답디다. 그 사람들의 뒤바라지를 걱정형님이 하는데 혼자서 얼마나 힘이 들겠소? 우리들이 가진 뭇에서 얼마가량 걱정형님한테 보내줍시다.》

여러 두령들이 다 좋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두령들로부터 군사들에 이르기까지 각기 자기 뭇에서 물건들을 냈다.

림걱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말할것 없고 아직 그의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물건을 내는데 서슴지 않았다. (다음호에 이음)



조선화장품무역회사



로화방지미안막

주성분: 히알루론산, 콜라겐물분해물, 인삼추출물, 단녀삼추출물, 불로초배양물, 당귀추출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효능: 고령약추출물과 히알루론산, 콜라겐물분해물, 불로초배양물과 같은 천연물질들이 피부의 깊은 층까지 침투되도록 제조한 천연미안막이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주며 이미 생긴 잔주름을 펴주어 피부를 생기있고 탄력있게 하여준다.

